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 (15일 전주 대비)

▼ 3085.90 (-66.28P)

코스닥

▼ 964.44 (-23.35P)

환율 (달러당 원화)

▲ 1099.40 (+9.6원)

금리 (국고채 3년물)

▲ 0.973% (-0.005%p)

고소득층 ‘투자 기회’…저소득층 ‘실직 악몽’

코로나 팬데믹 1년 ‘부의 불평등’ 심화

우량株 투자자는 상대적 큰 이익
부동산 불안감 2030 ‘패닉바잉’
1년 미만 비자발적 실업 ‘최대’
“코로나 고통 분담 시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실직에 내몰리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국내·해외 주식 금액은 총 10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11월 코스피지수는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봤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계좌 이용자(신규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20.32%에 달했다. 저금리와 재정지출 확대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쏠린 탓이다.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30대 여성의 수익이 특히 높았다.

부동산시장도 계속 들쭉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전년보다 각각 13.06%, 12.25% 올랐다. 매매·전셋값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건 1990년 전후, 2000년 전후, 2006년 정도로 손에 꼽힌다. 집값 추가 상승과 매물 고갈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20·30대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금융자산이나 신용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은 실직으로 내몰렸다.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통계 작성 기준이 개편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전년 동월(147만5000명)보다는 48.9%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의 휴·폐업이나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근로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63.5%), 종사자 규모별로는 1~4명(44.5%)에 비자발적 실직자가 집중됐다.

이 같은 상황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7%, 8.1% 줄었다. 1분위와 5분위(상위 20%)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소득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0.22배 포인트 나빠졌다. 노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가파른 속도다.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HRI 코로나 위기극복 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79.3포인트(P)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고용 부문 위기극복지수는 25.5P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4분의 1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충격이 덜했거나 아예 없었지만, 자영업자와 구직자들은 거의 모두 어려워졌다”며 “방역이 잘된 건 맞지만 국민의 어려움도 현실인 만큼, 일정 부분은 고통을 분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늘부터 헬스장 영업 재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18일부터 일부 완화돼 카페에서도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수도권외의 경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들이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풍선효과에 고삐 풀린 경기도 집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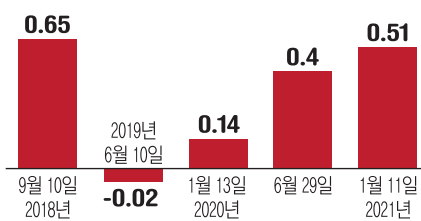
고양 1.71%↑ 등 경기 0.65% '썩썩'
서울·수도권 2년4개월 만에 최고

정부가 올 들어 연일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지만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더욱더 들쭉고 있다. 전국 곳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주택 매수 열기가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51% 올랐다. 2018년 9월 10일(0.65%) 이후 2년 4개월 만의 최고 주간 상승률이다.

눈에 띄는 건 경기지역 집값 강세다. 서울과 인천은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각각 0.38%, 0.24% 오른 반면 경기도는 0.65% 뛰었다. 고양(1.71%)·의정부(1.22%)·과천(1.06%)·남양주시(1.16%) 등지가 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주 동안 1% 넘게 올랐다. 성남시 중원구(0.85%)와 구리시(0.77%), 의왕시(0.83%) 등지도 크게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고양시 일산 신도시시는 동구와 서구가 각각 2.66%, 1.15% 급등했다.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동문3단지 전용 84㎡형은 지난해 최고 4억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초 5억 원으로 오르며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의정부시 민락동 호반베르디움1차에선 작년 상반기까지 4억 원 중반대에 팔리던 전용 84㎡형이 지난달 6억 원을 넘어선 뒤 이달엔 6억4580만 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무섭게 뛰는 건 ‘규제 폭탄’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집값 오름세가 뚜렷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시장에 공급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지만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최소 2~3년 걸릴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한 것도 수도권의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경기 전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

부산 중구·전남 해남 등 10곳 추진
이재명 ‘재난소득 기자회견’ 취소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내일(18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재난기본소득 관련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은 사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조4000억 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 개발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

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2차 지급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지사는 18일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날씨가 겹치는 데다 당내 반발이 있어 내부 조율 등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에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 중이거나 발표 예정인 지자체는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울산시 등 10여 곳에 이른다. 지원액은 대부분 10만 원가량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스페셜 리포트

‘경차’가 위기에 빠졌다.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를 앞세워 전성기를 누리던 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10만 대 선이 무너졌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완성차 5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경차는 9만6231대에 그쳤다. 연간 경차 판매량이 10만 대 아래로 내려간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가 전년보다 4.8% 증가한 와중에도 경차 판매량은 14%나 급감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연비, 정부의 세제 혜택 덕에 경차는 한때 전체 신차 판매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마이카(my car)’ 시대가 정착하는 데 기여한 공도 크다. ▶관련기사 6면

우리나라 경차의 역사는 1991년 ‘티코’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작은 차, 큰 기쁨’이



1991년 ‘티코’...마이카 시대 이끌어
저렴한 가격·유지비 앞세워 전성기
작년 9.6만대...12년 만에 10만대 밀

리는 슬로건을 내건 티코는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티코의 인기가 이어지자 현대차는 1997년 아토스를 내놓았다. 대우차는 티코의 후속으로 마티즈를 선보이며 맞대응했다. 이후 기아 비스토, 모닝, 레이와 한국지엠 스파크 등이 연이어 출시되며 경차 시장은 전성기를 맞았다. 2010

년대 들어 매년 15만 대 안팎의 경차가 판매됐다. 2012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기아 레이와 모닝, 한국지엠(GM) 스파크 세 종류다.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경승용차 다마스라 보는 내달 단종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차 판매량이 급감한 데에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 경차 관련 낡은 제도가 바뀌지 않은 데다 소비자를 유인할 새로운 모델도 나오지 않았다. 높아진 소득에 SUV·중형 세단 선호 경향이 확대된 점도 이유다. 유창욱 기자 woogi@

정용진 ‘미디어’… 정지선 ‘뚝심’… 신동빈 ‘술선수범’

유통 총수, 色다른 혁신 경영

국내 유통업계를 이끄는 3인방으로 불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연초부터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총수 리더십’을 통해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신년사를 시작으로 사장단 회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기 비전 발표 등을 하며 올해 경영 방향을 소개하면서 3인 3색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미디어를 활용한 대외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정 부회장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사 제품 사용을 ‘인증’하고 홍보한다.

정 부회장의 ‘미디어 경영’은 갈수록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최근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스타벅스현대카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현대카드 갯함. 별이 쏟아짐”이라는 문구와 함께 업로드했다. 스타벅스를 국내에 들여온 정 부회장이 한국 진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용 신용카드를 직접 홍보한 것이다.

앞서 이마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마트LIVE’에는 ‘배추밭 비하인드와 시장에서 장 본 이야기 공개!’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는 지난달 업로드된 ‘정용진



1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 유튜브 채널 '이마트 LIVE'에 출연한 모습. 2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임직원 및 고객봉사단과 2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연초 사장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유튜브 채널 갈무리·각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SNS 통해 자사제품 사용 인증 실적 회복·주가 개선 긍정적 효과

부회장이 배추밭에 간 까닭은?’이라는 영상의 메이킹 필름이다. 영상에서 정 부회장은 직접 요리하고, 상인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 부회장의 미디어 경영은 최근 이마트의 실적 회복과 주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준 두 영상의 조회수는 약 200만 회에 달한다. 소탈한 재벌의 영상에는 “이상하다. 응원하고 싶은 재벌”, “친근하고 겸손해서 좋다” 등 긍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룬다.

평소 ‘은둔의 경영자’라는 평가를 들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미래 10년 계획 ‘비전 2030’ 수립 ‘은둔 경영’ 탈피 공격적 행보 예고

만큼 조용한 경영을 펼쳐온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올해 달라졌다. 연초부터 2030년 장기 비전을 발표하는가 하면, 내달 여의도에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을 오픈하기로 돼 있어 공격적인 행보가 예고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새해 첫 업무일인 4일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열고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내기 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나부터 그룹 변화 선두에 설 것” 유연·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총력

됐다”며 “앞으로 10년간 그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 회장이 10여 년 전 발표한 ‘비전 2020’에 이은 두 번째 장기 계획과도 비교된다. 정 회장은 당시 ‘비전 2020’ 발표 후 한섬 인수, 면세점 사업 진출, 판교 현대백화점 출점, SK바이오랜드 인수 등 굵직한 사업들을 주도하며 ‘유통과 패션, 리빙·인테리어’라는 3대 사업축을 완성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시작하면 밀어붙이는’ 정지선식 ‘뚝심 경영’은 2010년 7

조8000억 원 수준이던 그룹 매출을 10년 만에 21조 원 규모로 불렀다. 이번 ‘비전 2030’에서는 향후 5대 신수종 사업(뷰티, 헬스케어, 바이오, 친환경, 고령친화)을 집중 육성해 매출 40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만큼, 정 회장의 경영 보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올초 사장단 회의에서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질책과 구체적인 주문을 내놓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룹이 지난해 직격탄을 입은 만큼 신 회장의 발언에 위기 의식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13일 롯데그룹의 올해 첫 VCM(사장단회의)에서 신 회장은 “10년 후 미래를 임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포츠의류 기업 나이키를 예로 들어 “나이키는 운동선수에 대한 존경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며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갖췄다. 계열사별로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2년간 어느 때보다 많은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선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CEO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말미에는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며 임직원을 독려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늘부터 헬스장·노래방 영업 재개… 카페 내 취식 허용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유흥시설 5종·홀덤펍 제외

일부 다중시설 집합금지 해제 스크린골프 룸당 4명까지 허용

18일부터 기존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주간(10~16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가 516.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날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날 말까지 유지한다.

대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업종이다. 공통적으로 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을 의무화한다.

업종별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줌바·태보·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을 허용한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



17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2월 14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해 이뤄지는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으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에 한해 1실당 1인, 칸막이 설치 시 4인으로 교습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하도록 한다.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방역관리자 상주를 조건으로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을 적용하되,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하도록 한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11만2000여 개소다.

전국적으로 19만여 개에 이르는 카페에 대해선 2인 이상 4인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제한,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파

티룸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일부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2주간 연장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손 반장은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20명 증가한 7만234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500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격리 중 확진자는 1만2838명으로 192명 줄었으나, 사망자는 1249명으로 13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2021년 1월 18~31일)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필요시,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파티룸

-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집객행사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안내문 게시)

종교활동

-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이 외 사항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조인 되는 길 넓어지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

앞으로 직장인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입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선발은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과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 기초 지식 평가시험 결과로 이뤄진다. 기존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활용하지 않아 입학 문턱을 크게 낮춘 게 특징이다. 방송대인 만큼 로스쿨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고, 수업 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다.

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난 6일 해당 법안을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취지는 취약계층이나 직장인 등도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으로 불합격자가 누적돼 기존 로스쿨의 합격률이 50%대에 그친 상황이라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도 이 같은 문제 제기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김윤호 기자 uknow@

글로벌 반도체 ‘M&A 격변’…삼성 행보에 쏠린 눈

슈퍼사이클 앞두고 주도권 경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업계의 합병연령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장비회사들은 연초부터 ‘빅딜’에 나서며 인수·합병(M&A)에 불을 지폈다. 업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현장행보를 통해 반도체 전략에 의지를 내비친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멈췄던 삼성전자의 M&A가 올해 공격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통신용 칩 제조사 퀄컴은 애플 출신 엔지니어들이 만든 반도체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한다. 인수금액은 14억 달러(약 1조533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누비아의 뛰어난 CPU(중앙처리장치) 설계 능력이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킹 시장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성능과 전력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로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의존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퀄컴의 맞수인 미국 GPU(그래픽처리장치) 업체 엔비디아는 지난해 ARM을 400억 달러(약 44조 원)에 인수키로 한 바 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로 단기적으로는 ARM의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 1위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도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켈컴, 스타트업 ‘누비아’ 1.5兆 인수
美 어플라이드 ‘고쿠사이’ 인수 추진
삼성, 대규모 투자·M&A 여부 주목
李부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가 열쇠

고쿠사이 일렉트릭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인수 예상가는 35억 달러(약 3조8000억 원)다. 앞서 어플라이드는 지난해 고쿠사이를 인수하기 위해 약 2조6800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고쿠사이 일렉트릭은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에 전기회로의 기본 막을 만드는 성막(成膜)장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어플라이드는 이번 인수로 5G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AMD, ARM, 애플 등에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평가받아온 인텔은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기존 밥 스완 CEO를 경질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업 VM웨어의 CEO인 팻 겔싱어가 영입될 예정이다. 신임 CEO는 과거 인텔 CTO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인텔의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술 전문가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의 지각변동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계는 삼성전자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텔 낸드 메모리사업을 10조 원에 인수하며 ‘빅딜’ 대열에 합류했다. 글로벌 최대 반도체 종합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파

반도체 합종연횡 현황			
기업명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SK하이닉스
인수 추진 기업	누비아	고쿠사이 일렉트릭	인텔 낸드사업
인수금액	14억 달러	35억 달러(예상액)	100억 달러
인수 시점	2021년 1월	인수 추진 중	지난해 10월 발표, 2023년 마무리
기대 효과	반도체 성능·전력효율 극대화	자율차·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SSD 기술력·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 출처: 각 사			

운드리와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구현하기 위해 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반도체 업계는 슈퍼사이클과 함께 반도체 부족이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GPU, 자동차 반도체,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생산시설 투자와 핵심분야에서의 M&A 등에 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은 이달 28일 열리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M&A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특히 18일 최종 선고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규모 금액이 집행되는 사안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역시 올해 첫 경영 행보로 평택사업장을 찾아 ‘뉴삼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평택2라인 구축·운영을 살펴보고 반도체 투자·채용 현황과 협력회사와의 공동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았다. 그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 함께하면 미래

를 활짝 열 수 있다”며 “삼성과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는 코로나 19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며 “삼성에는 물론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재계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첫발 댄 ‘공공재개발’ 난제 ‘수두룩’ “호재 선반영… 빌라투자 신중해야”

후보지 8곳 ‘기대만 우려만’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베일을 벗었다. 모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던 곳이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 주요 시범사업 후보지 조합은 일제히 환호했다. 다만, 앞선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좌초된 경험이 많았던 만큼 사업 완료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흑석2·양평13구역 등 선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사업시범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기존 정비구역 중 사업을 신청한 12곳 가운데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올해 말부터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후보지에는 동작구 흑석2구역 1310가구와 동대문구 용두1·6구역 919가구 등 총 4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상가 많아 동의 변수로= 다만, 재개발 사업은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만큼 사업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LH와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기존 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단위: 가구)

구역	위치	구역지정	기존 가구수	예상 가구수
흑석2	동작구	2008년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009년	389	618
양평14	영등포구	2013년	118	358
용두1~6	동대문구	2007년	432	919
신설1	동대문구	2008년	206	279
봉천13	관악구	2009년	169	357
신문로2~12	종로구	1983년	-	242
강북5	강북구	2014년	120	680

※ 출처: 국토부

추진 절차

1	1월 14일	후보지 선정위원회
2	2~3월	주민설명회
3	4~5월	MOU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4	6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5	연말~	정비구역 지정

업 기간의 절반 수준인 5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상가 비율이 높은데 상가 소유주 중 반대자가 많고 일부 주택 소유주 역시 공공 이미지를 싫어해 (최종 단계까지) 가 봐야 성공 여부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 내 투자 목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을 사들일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은 아직 사업 확정 단계가 아니다. 또 정부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해 빌라를 구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빌라 가격에 공공재개발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이 많은 데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재개발 지역 내 빌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기능식품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기능식품
600g (20gX30캡슐)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배고픈 자영업·배부른 배달앱... 'K자형 양극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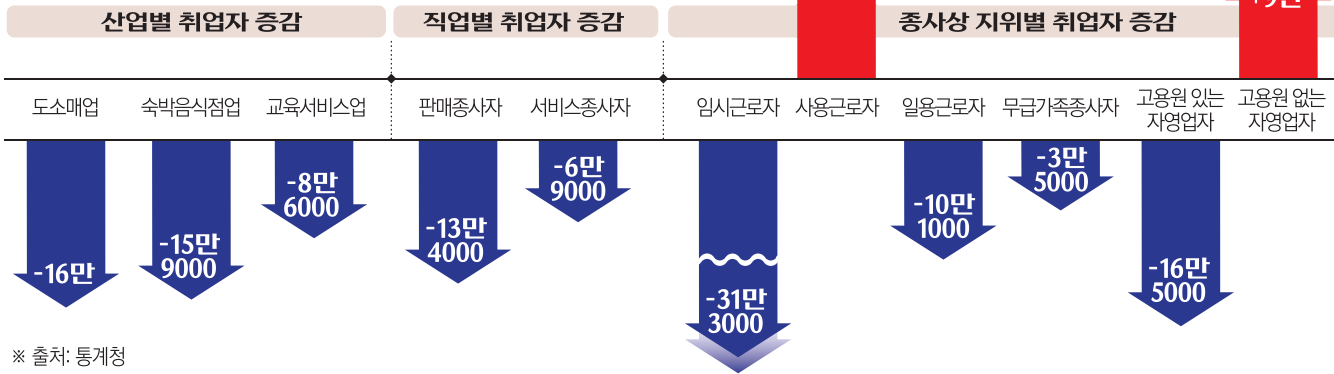
소매판매 전년보다 1.5% 감소
숙박업 등 취업자 32만명 줄어

배달 플랫폼 거래액 年 50% 성장
네이버·카카오, 나란히 최대 매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에 취약계층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수출이 줄면서 제조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경제 회복경로가 산업·계층에 따라 갈리는 'K자형' 양극화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1.5% 감소했다. 10월(-0.1%)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복 등 준내구재(-11.0%), 음식료품 등 배내구재(-4.2%) 감소가 가파르다. 서비스업생산도 1.4%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은 16.4% 급감했다. 전월(-4.2%)과 비교해선 감소폭이 12.2%포인트(P) 확대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단위: 명)



※ 출처: 통계청

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97.9)보다 89.8로 8.1포인트(P) 하락했다.

◇무너진 소상공인·자영업자 = 이런 상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다. 대면서비스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자영업자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등에 집중된 탓이다.

이들 업종의 타격은 고용지표로도 확인된다.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1만9000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31만3000명)과

일용직(-10만1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만500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는 이들 사업체에 소속돼 있던 고용원도 함께 줄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57만9000명의 임시·일용직이 일자리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원부터 정리한 탓이다.

그나마 제조업은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 상품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 0.9% 감소(이하

전년 동월 대비)에서 11월 5.7% 증가로 전환됐으며, 수출은 증가폭이 11월 4.1%에서 12월 12.6%로 확대됐다. 소비에선 준내구재와 배내구재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구재(12.8%)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하반기 수출이나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전됐지만,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띠다 보니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거래금액 연평균 50% 성장 =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플리케이션(앱) 시장 거래금액은 2015년 1조5000억 원에서 2018년 4조 원, 2019년 7조 원을 넘어 2020년 11조60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CAGR) 거래금액 증가율은 50%에 달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78%(2019년 거래금액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특히 큰 수혜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난해 3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 실적을 포함할 경우 4분기에도 매출 2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카카오도 2분기 연속 1조 원대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이런 성장경로 양극화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대면과 비대면, 내수와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K자형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韓, 경제 회복률 80%... 기지개 켜는 '제조업'

현대경제硏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

코로나19 경제충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률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회복세가 뚜렷한 반면 고용 지표는 여전히 위기 이전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발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HRI 코

고용지표, 코로나 이전 25% 수준
서비스업중 77.9p 회복세 더터
ICT, 나홀로 약진... 수출 양극화

로나 위기극복지수는 코로나 경제충격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9.3포인트(p)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경제충격의 강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로부터 79.3%가 극복 또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나머지 20.7%의 생산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체 경제의 최대 충격 시점은 5월이며 이후에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한국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 중이다.

내수, 외수, 고용, 산업생산의 4부문 중 고용 부문의 회복률이 가장 취약하며, 내수(소비)보다 외수(수출)가 그리고 산업 생산에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수(수출)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163.7p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충격을

100% 회복하고도 63.7%의 잉여 회복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반면, 내수(소비)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74.1p에 그쳤다.

수출에서도 ICT를 제외한 수출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80.4p에 그쳐 수출 경기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 부문에서 제조업의 위기극복지수는 99.3p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77.9p로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약하다.

고용지표는 경기 상황에 뒤늦게 반응하는 경기 후행하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 서비스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고용 부문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대기업이 미뤘던 채용을 재개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일 때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채용되고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입사하지 못한 신입사원에게 입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15일 대한항공은 2020년 입사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대졸(대학 졸업) 공채 합격자 60여 명에게 입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서비스업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해 회복 시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관광 사업체 500개 가운데 지난해 1~9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업체 비율은 97.6%에 달했다. 매출이 줄어든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66.6%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클럽에서
BRAVO
2021. 01 VOL.173
Monthly Magazine
My Life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적 박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리스트 조영진

책임감 있는 자유 노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청춘의 살살이갈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서 유행이다. 그런데 정말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떠하릴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림까지 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라며,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명동담이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막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토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까지만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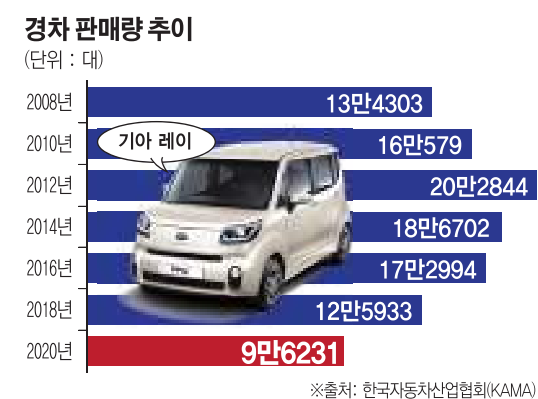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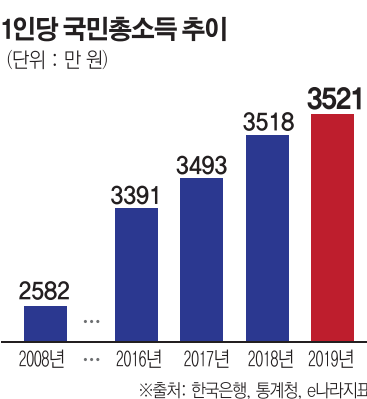
New Senior Life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고유가 저물고 소득 늘면서 ‘모닝’ 대신 ‘그랜저’ 탄다

잘나가던 경차 ‘브레이크’
신모델 없고 지원 제도 제자리
최근 SUV·중형 선호 경향 확대
연비 좋은 소형차 출시에 외면
경차+SUV ‘경형 CUV’ 부상

대한민국 소형차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5년 ‘공업합리화 조치’ 해제를 기다렸던 기아산업은 발 빠르게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했다. 당시 미국 포드는 소형 ‘시티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개발은 일본 마쓰다가 주도하고, 생산은 한국의 기아산업에 맡기기로 했다. 이 방식으로 세상에 나온 기아산업 1세대 프라이드는 미국에서 ‘포드 페스티바’로 팔렸다. 1980년대 초, ‘봉고 신화’로 기사화됐던 기아산업 역시 일본 마쓰다에서 소형차 ‘파밀리아’를 가져오면서 소형차 개발비를 줄였다. 생산한 차를 미국 포드가 매년 15만 대씩 구매해준다니 손해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아 1세대 프라이드가 시장에 나왔다. ◇IMF 구제금융 시절 절정=당시 대우자동차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만 없었다.



시대의 종말로 인해 당위성을 잃었다. 2010년대 중반 배럴당 150달러 수준에 달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50달러에도 못 미쳤다. 친환경 엔진 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개선되면서 원유 수요마저 하락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보유세금과 세제 혜택 등 경차 혜택도 더는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여기에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차만큼 연비 좋은 소형차와 준중형차도 속속 등장했다. ◇‘경형 CUV’가 대안=자동차 제조사 역시 경차에 관한 관심을 줄였다. 값비싼 노동력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싼 경차를 만들어봐야 남는 게 없었다. 기아가 경차 모닝과 레이를 동호회토에 위탁 생산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결국, 경차 시장이 격동기를 겪고 있다. 내수가 위축된 만큼, 신흥국 중심의 수출 전략 모델로 거듭나는 중이다. SUV 인기에 힘입어 경차에 SUV 기능성을 추가한, 이른바 ‘경형 CUV’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마저도 앞날을 장담하긴 어렵다. 값싼 경차는 ‘현지 생산 현지 판매’가 정설이다. 값비싼 한국의 노동력으로 생산한 경형 CUV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김준형 기자 junior@

경차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일각에선 경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 예측이라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경차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경형 SUV 등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의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다. 17일 기아와 한국지엠(GM)에 따르면 시판 중인 경차 모델(레이·모닝·스파크)은 매년 2만 대 이상의 수요를 유지해왔다. 웬만한 세단 차종의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경차를 선호하는 구매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경차 판

매량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차 업계 관계자는 “여성이나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경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용 차량, 최근 규모가 확대되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에서도 경차 인기는 꾸준하다”고 말했다. 실제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이 구매한 국산차 1~10위에 모닝(5위)과 스파크(7위)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 새로운 경차가 출시되는 점

도 긍정적 변수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행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9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SUV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만드는 소형 SUV 베뉴보다 한 단계 더 작은 모델로,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의 경차가 탄생하는 셈이다.

경차 판매량이 줄어든 데에는 ‘한정된’ 제품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차나 나오면 SUV를 선호하는 최근 추세와 맞물리며 경차 시장의 급격한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 업계 관계자는 “경차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는 해치백, 박스카, SUV 등 다양한 형태의 경차가 판매된다”며 “한국도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더 넓은 실내공간과 편의사양을 갖춘 신차가 출시되면 신차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 전망도 있다. 신차가 출시된다 해도 세단이나 중형 SUV를 선호하는 고객층을 끌어들이긴 어려운 만큼, 경차 시장 자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차 업계 관계자는 “경형 SUV가 출시되면 신차 효과를 누리며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할 순 있겠지만, 결국 모닝이나 스파크를 구매할 고객을 뺏어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차 시장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여할진 몰라도 SUV와 더 큰 차를 선호하는 흐름을 되돌릴 만한 변수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경차의 미래는? ... CUV 출시되면 반등 가능성

YouWho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YOU WHO

Meet you All

Designed by B-for Brand
www.b-forbrand.com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Red Dot Design Award

2020 펜타워즈 브론즈 어워드
Pentawards Bronze Award

1. 유후는 미원다이에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서비스로서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인종의 DNA와 비교 합니다.

2. 나의 무게 7개그룹, 모계 12개그룹의 유전적 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NAVER

유후

제품상담 : 032-713-2128 | 구매문의 : www.youwho.co

EDGC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미원다이에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탈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여야, 서울시장 보선 후보 경쟁/

與, 우상호·박영선 양자구도 정책 승부 vs 민생회복 초점

우, 부동산·환경 등 정책 잇따라
박, 코로나 위기 극복 공약 낼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월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간 박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출마 고민이 길어지면서 우 의원만 단독으로 나서 꾸준히 정책비전 발표를 해왔다. 그러다 박 장관이 이번 주 내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박 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음이 알려지면서 우 의원과 박 장관의 양자구도 윤곽이 드러났다.

두 인사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우선 우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고 착실히 정책비전을 발표해온 '정책 부자'라는 점이 장점이다.

최대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강변북로 위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 16만 가구'와 '10평대 공공임대·20평대 공공전세·30평대 공공자주주택' 등 공급책들을 내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도 서울시립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환경정책 비전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준비한 게 15개가 있다"며 "(당내) 후보 경쟁 구도가 되면 비교가 되면서 주목을 끌 것"이라고 '정책 부자'로서의 자신감을 보였다. 야권의 안철수·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나와 콘텐츠가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책 면의 강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라 공약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집행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행보로 미루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회복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 직무를 수행해온 경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은 부동산과 함께 선거 최대이슈인 만큼 이 강점을 살린 공약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오세훈 합류... 야권 '3파전' 안철수·나경원 공약 맞대결

오 "5년 동안 시정경험, 비장의 무기"
안 "주택 공급"... 나 "소상공인 숨통"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출마 대열에 합류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야권의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은 각각 '5년 시정경험', '부동산 공급대책', '맞춤형 민생지원책'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공약 대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과거의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빈사 상태의 서울은 시장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아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며 "저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산과 5년간의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안 대표는 최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공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 1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그 후 임기 4년까지 합해 총 5년간 진행할 방침을 세운 장기 프로젝트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있겠나"며 "다음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시간·토지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5년 내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나 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정책발표회를 열고 △민생긴급구조 기금 6조 원 마련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배달갑질 근절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20만 명을 위한 최대 6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1인당 850만 원의 보조금 지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리허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탁현민(오른쪽) 의전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구리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세

경기 회복·위험자산 선호 영향

유가와 구리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원자재값은 경제 선행지표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개선에 대한 청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17일 한국은행은 국제원자재가격이 세계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 지속 등 요인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데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부양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원자재시장에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50달러대 중반까지 올라간 유가가 가격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봤다. OPEC+ (석유수출국 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올 1월부터 감산 규모를 일평균 7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로 조정할 데다, 사우디아

라비아가 감산쿼터와는 별개로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하는 등 생산쿼터를 조정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현재 부셴당 14달러를 넘은 대두 등 곡물과 현재 톤당 8000달러 안팎의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900달러 내외에서 횡보하는 금 가격은 향후 상승과 하락 전망이 엇갈렸다.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상승요인과 최근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원자재가격은 소비자물가에 2개월, 상품교역량에 1개월 각각 선행하고, 산업생산에 동행한다. 다만, 산업생산지표가 통상 2개월 후 발표된다는 점에서 국제원자재가격은 경제활동의 신호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김남현 금융전문 기자 kimnh21c@

고속도 정체구간 2년 내 220km 줄인다

갓길 늘리고 노선 확장

한국도로공사가 2023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220km가량 줄이기 위해 갓길 차로 설치와 노선 확장 등 대대적 개선 작업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고속도로 교통 정체 개선계획(2021~2023년)'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3년 단위로 정체 구간을 재선정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개선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체 구간 기준속도를 시속 4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일 통행 속도 시속 50km 미만인 상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 달에 8일 이상 발생하는 구간, 주말 차량 흐름이 시속 50km 미만인 상태가 하루 2시간

이상씩 한 달에 4일 이상 발생하는 구간을 정체 구간으로 정했다.

기존 속도 상황에 따라 정체 구간을 재선정한 결과 정체 구간은 9개 노선에 50개 구간, 총연장 314.4km로 나타났다. 4차 계획 수립 당시 총연장(176km)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했다.

정체 구간 재선정 결과 노선별 최장 정체 노선은 수도권 1순환선(96.2km)으로, 이어 경부선(74.8km), 서해안선(51.1km), 영동선(42.1km)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32.6km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5차 계획기간인 2023년까지 전체 정체 구간의 70%(220km)에 대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갓길차로 설치, 연결로 개량, 도로 신설·확장 등 60개 세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 논하라

현장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굼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익공유제다. 양극화·해소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뿔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려는 의도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국회에 계류된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들을 추진하면서 당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내세우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영입이 제한된 피해업종 손실보상이 입법 미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임에도 기업 옥죄기 비판을 넘지 못해 좌초된 해묵은 과제인데 왜 이리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할까. 지금도 이익공유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차고 넘친다. 야당의 '사회주의 타령'은 차차하더라도 당사

민주당, 선거 앞두고 속도전
'기업 옥죄기' 경기위축 우려

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업 이익 축적 어려움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임의 이익 공유에 대한 사법적 책임 △외국기업 제외 시 형평성 문제 △기업 성장 동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여당의 속내를 짐작하자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져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재정 상황도 좋지 못하니, 기업의 손목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재원조달책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

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이익공유제로 채울 공산이 크다. 기업의 손을 빌려 소요재정은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손목 비틀기'일 뿐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큰데 재정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증세를 논하는 게 맞다. 코로나19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기업을 떠미는 건 결국은 선거 때문이다. 코앞의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후년에는 대선이 다가오니 증세와 같은 '표 떨어지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무리하게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다가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으로 경기가 위축된다면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매한가지다.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지금 집권세력이라면 정치적 계산보다 우리나

김윤호 기자 uknow@

바이든, 취임 즉시 트럼프 정책 갈아엎는다

코로나 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문제 등 ‘4대 위기대응’
‘파리협약 재가입’ 등 취임 첫날, 12개 행정명령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일 내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갈아엎을 것을 예고했다. 또 취임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親) 트럼프 시위대의 난동과 공격이 예상돼 수도 워싱턴D.C.는 물론 각 주가 비상에 빠졌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날 백악관 고위직 참모진 내정자들에게 발송한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메모에 담긴 주요 계획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문제 등 4대 위기대응에 대한 대응이다. 바이든은 취임식 첫날에만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들 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입법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시급한 사안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이다.

클레인은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열흘 이내에 4가지 위기 대응을 비롯해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

를 할 것”이라며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끼친 심각한 피해를 되돌리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기 위한 조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31일 전까지 학자금 대출 유예와 임차인 퇴출·압류 유예 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법 개편, 마스크 100일 착용 캠페인 등이 첫날 바이든이 서명할 주요 행정명령이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확대와 노동자 보호, 보건 기준 수립 등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이 계획돼 있다. 22일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가게를 위한 구제책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 문제와 최저시급 인상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기 다뤄질 전망이다.

클레인은 “당선인은 이러한 의제 성립에 의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취임 첫날 최소 한 가지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회와의 협력 또한 강조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바이든 당선인이 예고한 행정명령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그렸던 것처럼 바이든도 취임과 동시에 전임자 지우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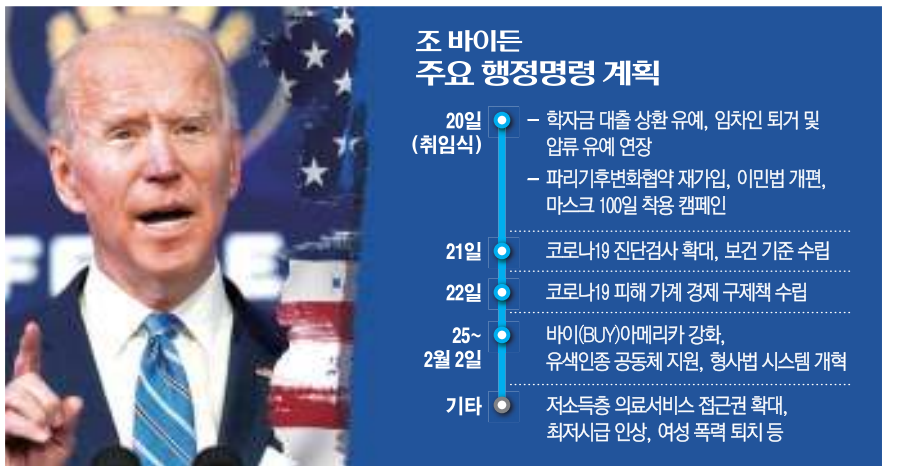
한편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은 물론 각 주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2만5000명 주방위군 병력이 집결한 상태이며, 텍사스주와 켄터키는 각각 16일과 17일에 의사당 폐쇄를 결정했다. 오하이오는 주방위군 1000명을 투입해 의사당 보호 조치에 들어갔고, 뉴저지는 취임식 당일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미시간은 17일 예정된 집회에 대비해 의사당 주변에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아예 의사당 주변의 집회 허가를 취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밤에는 한 남성이 미등록 권총과 탄약 500발을 소지한 채 연방의회 의사당 검문소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6일 벌어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도 미국 내 정치 분열은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CNN방송은 “연방수사국(FBI)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식 전 50개 주의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伊 FCA·佛 PSA ‘자동차 빅딜’ 글로벌 4위 ‘스텔란티스’ 출범

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 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과 푸조와 시트로엥 등을 보유한 프랑스 대표 자동차그룹 PSA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4위 자동차업체가 탄생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스텔란티스(Stellantis)’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회사가 됐다. 합병회사의 이름은 “별과 함께 빛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왔다. 스텔란티스는 2019년 신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현대차(719만 대)를 단숨에 넘어 독일 폭스바겐(1097만 대)과 도요타(1074만 대), 닛산·르노·미쓰비시 연합(1015만 대)에 이어 세계 4위(789만 대) 업체에 오르게 됐다.

FCA는 2018년 프랑스 르노와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2019년 PSA와 50대 50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로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스텔란티스는 지프부터 램, 푸조, 시트로엥, 오펔,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등 14개 브랜드를 거느리게 되며 단숨에 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

전 세계 자동차업체 순위 (단위 : 대)
※ 2019년 신차 판매 기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순위	업체명	판매 대수
1위	폭스바겐	1097만
2위	도요타자동차	1074만
3위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1015만
4위	스텔란티스(FCA+PSA)	789만
5위	제너럴모터스(GM)	771만
6위	현대자동차	719만

게 된다. 회사의 합병 가치는 15일 중가기준으로 510억 달러에 이른다. 회사 측은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연간 6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비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의 행보는 몸집을 줄여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경쟁사와는 대조적인 전략이다. 포드가 최근 100여 년 만에 브라질 공장 문을 닫는다고 발표하는 등 다른 업체들은 손실을 보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글로벌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새 회사의 수장은 카를로스 타바레스 PSA 최고경영자(CEO)가 맡게 된다. 타바레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추락하는 업체를 되살려낸 성공신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35년 장기집권’ 우간다 대통령, 6選 성공 동아프리카 우간다를 35년간 통치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6선에 성공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대선 투표 집계 결과 무세베니 후보가 58.6% 득표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자 수도 캄팔라에서 무세베니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아당은 부정 선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캄팔라/AFP연합뉴스

중국, 우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도시 봉쇄’

허베이성 3곳 이동제한 연장... 춘제 앞두고 ‘코로나 비상’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우한시를 봉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현지에서 다시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명절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여러 도시가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의 3개 도시에서 지난 15일 90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연장됐다.

허베이 정부는 “허베이 성도인 스자좡과 난궁시는 19일까지, 랑팡은 18일까지 봉쇄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2일 이후 허베이성에서만 688건의 신규 확진이 발생했으며, 이 중 646건이 스자좡

에서 보고됐다. 또 이번에 허베이에서 발생한 확진 규모는 지난 몇 달간 중국에서 발생한 규모 중 가장 큰 수준이며, 발생 지역도 수도 베이징 인근이어서 춘제(설날)를 앞두고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해 1월 우한시에서 코로나19를 세계 최초로 확인하고 봉쇄한 중국은 오는 23일 봉쇄 조치 1년을 앞두고 있다. 당시 중국은 봉쇄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4월 8일 해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봉쇄에서 일찍 벗어난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지적 감염과 이에 따른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경기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춘제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억 명의 중국인이 이동하는 만큼 대규모 소비 진작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올해만큼은 도시마다 주민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중국 국무원 역시 최근 “전염병 통제를 위해 각 기업은 휴가를 통해 근무 유연성을 늘리고, 직원들은 근무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라”는 공고를 올리며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중국은 15일 하루에만 전국 130건의 확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 중 115건이 국내 감염으로 집계됐다. 83건이 허베이성 스자좡에 몰렸지만,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도 각각 23건, 32건이 발생하는 등 확진 사례가 여러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당국이 공식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은 무증상 환자도 79건에 달한다.

SCMP는 “베이징시는 외국인 여행객이 입국 후 21일간 격리된 후 다시 7일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베이징은 최근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경계심을 요구하는 도시가 됐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뛰어드나

테스트용 접히는 화면 개발... 정식 제품 나올지는 미지수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품화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경쟁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부 테스트용으로 폴더블 화면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발 작업은 폴더블 스크린에만 국한됐으며 완전체 형태의 휴대폰 시제품은 아니다.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 애플은 아이폰12 프로 맥스에 탑재된 6.7인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크기로 펼쳐지는 것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폴더블 스크린 크기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폴더블폰들은 펼쳐졌을 때 스크린 크기가 6~8인치 정도다. 현재 삼성전자(갤럭시 폴드)와 모토로라(라즈르)와 화웨이(메이트 Xs) 등이 폴더블폰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2007년 터치스크린의 아이폰으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평정한 애플이 폴더블 버전 아이폰을 내놓는다면 다시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현재 차세대 플래그십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공개될 신규 아이폰 라인업은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문인식 기능 재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은 2017년 아이폰X를 기점으로 프리미엄 폰에서 지문인식 센서를 빼고 비밀번호와 페이스ID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시켰다.

올해 신모델이 큰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일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엔지니어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됐고, 이는 제품 개발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폰12 출시도 예년보다 수 주 지연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자금 블랙홀’ 된 증시… 두 달 새 정기예금 10兆 줄었다

올해 2주간 마통 2만개 개설 등
증시 활황에 신용대출 7兆 급증
요구불예금 잔액도 11.7兆 줄어

당국 “여윌돈 아닌 과도한 빚투”

코스피가 약 1000포인트 급등했던 2개월 동안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이 10조 원 가까이 줄고 신용대출은 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신용대출이 계속되는 현상은 증시활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은 마이너스 통장(마통) 대출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국은 마통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개인 고객 자금이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넘어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기예금·요구불예금, 주식으로 흘러”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

구분	정기예금 잔액	정기적금 잔액	요구불예금 잔액
2020년 10월 말	640조7257억	40조9856억	583조5457억
2020년 11월 말	639조8841억	41조4277억	599조7909억
2020년 12월 말	614조4076억	41조3210억	615조5798억
2021년 1월 14일	630조9858억	41조1940억	603조8223억
증감 특이사항	2020년 10월 말 이후 9조7399억 감소	2020년 11월 말 이후 2337억 감소	올해 들어 11조7575억 감소

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정기예금 총 잔액은 630조98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말(640조7257억 원)보다 9조7399억 원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40조9856억 원에서 41조1940억 원으로 2083억 원 늘었지만, 작년 12월 이후로는 빠르게 줄어든다. 11월 말과 비교해 12월 한 달간 1067억 원 감소했고, 올해 들어 14일까지 추가로 1270억 원이 더 빠졌다.

언제라도 뺄 수 있어 단기 자금 성격의 돈

이 머무는 요구불예금 잔고 수위도 최근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5대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615조5798억 원에서 지난 14일 603조8223억 원으로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11조7575억 원이나 급감했다.

코스피는 작년 10월 30일(2267) 이후 줄곧 치솟아 이달 11일 장중 3266에 이르렀다. 불과 두 달 보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된 셈이다.

은행권은 이런 자금 흐름의 주요 배경으로 주가 급등을 꼽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에서 해지된 자금, 요구불

예금에 났던 여유자금 등이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4일만 마통 2만개 ↑… “빚투 위험” =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은 모두 2만588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1조6602억 원 늘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포함한 신용대출 행렬도 증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신규 신용대출(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이 지난해 12월 31일 1048건에서 14일 약 2.2배인 2204건으로 뛰었다. 지난 11일에는 금융 소비자들 사이 5대 은행에서 단 하루에 새로 뚫은 마이너스 통장 수가 2742건까지 치솟았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135조5286억 원으로, 작년 말(133조6482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1조8804억 원이 늘었다. 증시가 본격적으로 급등세에 들어선 11월 초 이후 증가액은 6조6835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전문직을 상대로 한 고객 대출 조이기와 더불어 마통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여윌돈으로 해야 하는 주식투자에 과도하게 빚투 쪽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빚투로 거액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은 개미가 입을 타격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윤석현, 소비자보호 신념 ‘금융민원총괄국’ 만든다

금감원, 민원분쟁조사실 확대
이르면 이번 주 국·실장 인사
분쟁조정3국 신설도 검토



금감원은 분쟁조정3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3국에는 애초 분쟁조정 2국에서 담당 하던 업무를 이관하고, 사

윤석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후반전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3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실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전망이다.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월 중에는 팀장과 팀원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곳은 지난해 신설된 소비자보호처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원을 줄이는 것 등을 요구받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처 조직개편에선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 개편해 금융민원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소비자보호처는 4국2실, 22팀, 13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6국1실, 24팀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분쟁조정국을 총괄하는 금융민원총괄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총괄국에는 금융민원총괄팀, 원스톱서비스팀, 민원조사팀이 속할 것으로 보인다.

모펀드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용사 18곳, 전체 사모펀드의 50%를 대상으로 검사가 완료됐고, 오는 2023년까지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임시조직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내부적으로 정규조직화 하지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와 인원수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조정2국에는 분쟁조정1국에서 담당하던 제3보험을 실손보험과 상해 질병보험으로 세분화해 담당할 예정이다. 보험민원 가운데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 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소처 산하의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기존과 같이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 데이터 관련 산업과 기업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연 기자 sjy@

손태승 “매일 첫날 같은 자세로 혁신하라”

우리금융, 경영전략 워크숍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혁신기업들처럼 매일을 첫날 같은 ‘Always Day One’의 자세로 혁신해 시장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자”고 당부했다.

1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15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1년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신년사에

서 강조했다. 회복탄력성을 재차 언급한 뒤 “재무실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우수철처럼 다시 뛰어 올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당 회의에는 그룹사 임원진과 부서장 등 약 600여명이 유튜브로 참여했다. 우리금융은 ‘Innovate Today, Create Tomorrow’라는 영문 비전을 행사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전 그룹사의 새 비전과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 (군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웹발도,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갤럭시 생태계, 스마트홈·커넥티드카로 확장”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경영진 ‘갤S21’ 출시 인터뷰

“2021년을 맞이하는 삼성의 최우선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모바일 경험과 혜택을 전하는 것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17일 자사 뉴스룸에 공개된 갤럭시S21 출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202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술을 통해 우리는 소통을 이어가고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 S21 시리즈의 특징으로 새로운 디자인, 전문가급 카메라와 비디오, 강력한 성능, 이용자의 스타일과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플래그십 제품군을 선보였다고 자부한다”라며 “모바일의 경계를 넘어 스마트홈과 커넥티드 카까지 더 확장된 생태계를 열어나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패키지서 충전기 제외한 이유 = 갤럭시S21 출시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S펜 추가와 패키지에서 충전기를 제외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패트릭 쇼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CX 실장 부사장은 이번 갤럭시S21 기본 패키지에서 유선 헤드폰과 충전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액세서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일상에서도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는 갤럭시 사용자들이 많다”라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S21 시리즈를 기점으로 ‘덜어내는 것’의 가치에 집중했고, 패키지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거하며 경량화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S펜 추가에 대해서도 노 사장이 “갤럭시S21 울트라로 S펜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과감히 도전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도 S펜의 경험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 진화한 이미지센서 = 많은 소비자가

차량 디지털기 등 파트너십 추진
프로급 카메라, 사진작가도 만족
S펜, 다양한 제품군에 지원할 것

관심을 두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미지센서 탑재를 통해 성능을 대폭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은 “갤럭시S21 시리즈 카메라에는 특히 수많은 기술과 혁신을 집약했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삼성의 진보한 이미지 센서”라며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해 도전을 추구하는 전문 사진작가, IT 전문가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라고 했다.

◇ UWB 기술로 갤럭시 생태계 넓힌다 =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로 낙점하고 집중적으로 개발 중인 UWB(초광대역) 기술 적용 사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UWB 기술이 적용된 기능들은 갤럭시S21+와 갤럭시S21 울트라에 대폭 적용됐다.

UWB 기술은 갤럭시 시리즈의 연결성을 높이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김 부사장은 “개방형 협력을 통해 ‘에코시스템’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UWB 기술 확장을 통한 개방형 협력은 스마트폰 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사장은 “주요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으로 올 여름부터는 차세대 자동차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 모델에 디지털 키(digital key)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서울 강남구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S21’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갤S21’ 써보니 모르는 사람 찍혀도 클릭하면 싹 지워져

100배 줌 카메라에 수준급 편집 보는 콘텐츠 따라 화질 자동변경

“디자인이 잘 빠졌다.”

갤럭시S21을 직접 본 첫 소감이다. 전면은 기대했던 카메라 홀을 숨기는 UDC(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구현되지 않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후면은 달랐다. 과거 ‘인덕션’, ‘카툰’ 등으로 놀림 받던 카메라 부문을 최대한 이쁘게 꾸몄다. 후면 카메라 하우징이 좌측 메탈 프레임과 스마트폰 바디에 마치 하나와 같이 매끄럽게 연결됐다.

갤럭시S21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S21 울트라에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점도 눈에 띈다. 디자인 면에서는 엣지가 낮지만, 한 손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기에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역시 크게 개선됐다. ‘갤럭시S21’은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에 따라 화면 주사율이 48Hz부터 최대 120

Hz까지 자동으로 변경된다. 주사율이란 모니터가 1초당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프레임에 뜻하는 용어다. 주사율이 높으면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갤럭시S21 울트라의 경우, 쿼드HD+ 화질에서도 동영상을 보다가 잠시 멈추고 이메일을 확인하면 화면 주사율이 10Hz에서 120Hz까지 자동으로 변한다. 또 갤럭시S21 울트라는 최대 밝기 1500nit를 지원하는데, 이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밝다. 햇빛이 짙은 야외에서도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가리지 않아도 웹사이트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S 시리즈 최초로 S펜이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기자가 갖고 있던 S펜을 이용해 여러 작업을 했는데, 꺾노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했다.

갤럭시S21 시리즈에서 가장 탐나는 기능은 카메라였다. 이 가운데 ‘디렉터스 뷰(Director’s view)’는 촬영 장면을 미리 보고, 카메라 렌즈를 교체하며 촬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갤럭시S

21 울트라에는 레이저 자동초점(AF) 기능이 들어갔다. 피사체와 일정 거리만이 되면 근접 초점 기능이 켜지면서, 작은 글씨까지도 또렷하게 잡는다.

갤럭시S21은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통해 최대 3배까지, AI 기반의 디지털 줌을 통해 최대 30배까지 줌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S21 울트라는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광학 3배, 10배의 듀얼 광학 렌즈 시스템이 적용됐고, 100배 스페이스 줌을 구현한다. 20배 이상으로 줌 인하면 자동으로 ‘줌 록’ 기능이 활성화돼 흔들리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

주변 인물이나 풍경을 지워주는 기능도 있다. 사진 촬영 후, 편집모드에서 ‘실함실’로 들어가 ‘주변 개체 지우기’를 활성화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끝난다. 사진에 모르는 사람이 찍혔을 경우나, 불필요한 풍경을 없애고 싶을 때 클릭만 해주면 싹 지워진다. 아직 실험실 모드라서 완벽하게 제거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향후 정식 버전에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LG전자 임직원 스타트업 분사

‘체형에 맞는 의상’ 추천 서비스 외부 액셀러레이터와 첫 사업화

LG전자가 임직원이 낸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반으로 사외벤처를 추진, 미래 신사업을 육성한다. 17일 LG전자는 “최근 미래사업 준비, 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프로젝트를 사외벤처로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외벤처는 LG전자 임직원이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외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와 함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첫 사례다. LG전자는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와 협업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LG전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 역량과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초 분사한 사외벤처 기업명은 ‘EDWO(Eternal Delight, Wonderful Odyssey)’로 정했다. ‘큰 즐거움이 끝없이 펼쳐지는 멋진 여정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이름이다. 이 회사는 패션 산업 이해도와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뉴노멀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패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고객 체형에 맞는 최



LG전자에서 분사한 ‘EDWO’는 온라인에서 체형에 맞는 옷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적 치수, 모양새에 맞는 옷을 찾아주는 ‘히든피터(Hidden Fitter)’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LG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사내·외 벤처를 비롯해 다양한 시도를 도입하고 고객가치 기반의 신사업과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사외벤처로 이동하는 임직원이 희망하면 5년 이내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사 내에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말 LG전자는 사내벤처 프로그램 ‘LGE 어드벤처’를 도입하고 최종 2개 팀을 선정해 바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두산 계열사 한자리에…분당두산타워 준공

두산重 이어 (주)두산·밤캣 입주

두산그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두산타워(사진)’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일부 부서가 18일 분당두산타워로 처음 출근하고, (주)두산, 두산밤캣, 두산큐백스 등 계열사들도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분당두산타워는 부지 면적 8943㎡, 총 넓이 12만8550㎡, 높이 119m의 지상 27



층, 지하 7층 규모다. 사우스(South)와 노스(North) 2개 동으로 나뉘었고 상단

부가 그룹다리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집, 건강 센터, 직원식당, 대강당 등 직원용 편의시설과 리모트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 협업 공간을 갖췄다. 사우스동 4층에는 두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자리잡았다.

두산 관계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모이면서 계열사 간 소통이 확대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2019년 -1.4% ‘역성장’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역성장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9년에 -1.4%로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세가 둔화하며, 고부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전

5년간에 비해 3.1%포인트(p) 감소했다.

국내 고부가 산업 총부가가치는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13년 17.9%까지 상승한 후 2018년에는 17.1%로 하락했다.

국내 고부가 산업이 전 세계 고부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1%로 올라선 후 장기간 3.3~3.4% 수준에서 정체됐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 고부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24.2%까지 상승하며 미국(25.5%)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국내 고부가 산업 내 기업 연구·개발(R

&D) 투자는 경쟁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부가 산업 내 기업 R&D 투자는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10.3% 증가했다. 이는 미국 7.6%(2009~2017년), 독일 6.8%(2009~2017년), 일본 3.0%(2009~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R&D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이전 5년간에 비해 4.1%p 감소했으며, 고부가 산업 R&D 중 고부가 서비스 비중은 6.0%로 미국 31.4%, 일본 11.6%, 독일 10.4%에 비해 크게 낮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DJSI

〈20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 기업

1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할 대한민국 대표 초우량 기업입니다.

DJSI는 이 기업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1999년 발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 표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난 22년간 전 세계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의 종합적 기업가치 제고
- 세계적 표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글로벌 생존력 향상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라운드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 지수편입을 통한 명성제고와 지속가능한 투자자금 유입증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기업을 단순한 재무적 정보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DJSI Korea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운영기관으로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도기업인 SAM(S&P Global Switzerland)이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한 세계 최초 국가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입니다.

현대기아, 작년 친환경차 판매 36% 늘어 50만대

내달 아이오닉5 공개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23종 계획
글로벌 연 100만대 목표 '착착'

현대·기아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50만대가 넘는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라 추후 양사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공장 판매 기준(중대형 상용차 제외)으로 국내 16만1563대, 해외 33만9924대 등 총 50만1487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2019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56%, 해외 판매는 29.1%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전체 판매량 중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전년보다 2.8% 포인트 늘어난 7.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HEV)가 26만218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차(EV) 17만

8158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5만4362대 △수소전기차(FCEV) 6781대 순으로 팔렸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기아 니로(6만3350대)가 가장 많이 팔렸다. 국내에만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3만8989대로 2위를 차지했고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3만5946대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2만8337대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1만6545대 순이었다.

전기차는 국내에서 전년 대비 18.7% 증가한 2만7548대, 해외에서는 93% 급증한 15만610대가 팔렸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8만4735대)이 가장 많이 팔렸고, △기아 니로 EV(5만2018대)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1만3884대) △기아 쏘울 EV(1만88대)가 뒤를 이었다. 1톤 트럭인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EV도 각각 9037대, 5357대 팔렸다.

국내 판매가 부진했던 PHEV는 해외에서 니로와 아이오닉이 인기를 끌며 전체 판매량이 22.5%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PHEV에 주어지던 보조금이 폐지되는 만큼, 해외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

질 전망이다.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내달 아이오닉5를 공개하고, 기아와 제네시스도 각각 프로젝트명 CV, JW 등을 출시해 전기차 제품군을 보강한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12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56만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2040년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8~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사명에서 '자동차'를 뺀 기아는 중장기 전략인 '플랜S'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1종의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7년까지는 7개의 전용 전기차 제품을 선보인다. 승용부터 SUV, MPV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차급에는 E-GMP가 적용돼 장거리 주행과 고속 충전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6.6%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는 연간 5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지난해 현대차·기아 친환경 모델 판매가 50만대를 넘어섰다. 효자 모델은 단연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6만3350대가 팔렸고, 전기차 역시 5만2018대를 판매해 코나 일렉트릭(8만4735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전제금 기아

선박 고유황유 수요 시들...수입 중단도

㈈한화, 병커C유 취급 안하기로
친환경 저유황유로 대체 움직임

글로벌 친환경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 등으로 기존 선박 연료인 고유황 병커C유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병커C유에서 공해 물질인 황 성분을 낮추거나 아예 다른 친환경 연료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17일 상사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무역업에서 최근 병커C유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에서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상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무역업을 축소하는 방향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화는 무역 부문을 해체하고 유화 사업은 화학·방산 부문으로, 기계 사업은 기계 부문으로 넘겼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확산하면서 병커C유에 추가 공정을 거쳐 만든 저유황유(LSFO)가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도입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IMO 2020'이 있다. 선박유의 황 함유량 상한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이에 대비해 일찌감치 LSFO 시설을 도입했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IMO 규제로 더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LSFO에 대한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병커C유였던 고유황유(HSFO)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최근 코로나19 회복세와 물동량 회복 등으로 LSFO 수요가 반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병커C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작년 8월 리터 당 504.7원에서 11월 466원까지 계속 떨어졌다. 같은 기간 LSFO 스프레드는 계속 커지다 11월에는 배럴 당 7달러를 기록했다. 스프레드가 높으면 제품을 팔고 남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석유 제품 중에 유일하게 손익분기점 넘겼다.

새로운 에너지로 연료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화석연료 대신 암모니아, 전기 등으로 운행하는 선박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말레이시아 선사 MISC, 선박 엔진 제조사 만에너지솔루션즈(MAN), 영국 로이드 선급 등과 '암모니아 추진 아프리카스(A-Max) 탱커'를 개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디펜스와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선박 내 발전기와 전력 부하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현대로템, 3년 만의 흑자 눈앞 이용배 사장 '체질 개선' 성공

현대로템이 이용배(사진) 사장 취임 1년여 만에 환골탈태에 성공했다. 이 사장이 주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으로 3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17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 2017년(454억 원) 이후 3년 만이다. 현대로템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845억 원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오른 2조706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로템이 이른 시일에 적자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드물었다. 주축인 철도 사업의 경쟁력이 저가 수주 여파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이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데는 이 사장의 역할이 컸다. 현대자증권 사



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사장은 2019년 12월 대표 이사로 부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비상경영 선포

식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내실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사내에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가 수주전에 참가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테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유니콘 나오려면 스타트업 성장하는 ‘시장’ 만들어야”

인터뷰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올 스타트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합종연횡’ 바람 불 것
원격의료·모빌리티 등 유니콘 나올 만한 시장 열어줘야
국내시장, 규제보다 정책 조정기능 실종이 가장 큰 문제

올해 국내 스타트업계에 ‘합종연횡’ 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기업부터 규모가 비슷한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뭉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이사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협력단체다.

◇2021 국내 스타트업 키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합종연횡=이 이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촉발한 경기 침체에도 국내 스타트업계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국내에는 정부 주도 자금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우 “업종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언택트(비대면)나 기업 간 거래(B2B)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했다”며 “특히 B2B 기업이 성장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집중하던 스타트업계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올해 스타트업계의 키워드로는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흐름 △스타트업의 합종연횡 △전략적 투자자(SI)의 판 △커머스발(發) 대형 합병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가 이투데이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이사는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해 투자하거나 사내벤처 등을 통해 기존 사업과 스타트업을 결합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 보인다”며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가 탄탄한 만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의 혁신을 위해 대학교, 스타트업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이사는 “대형 스타트업들의 합

종연횡 또는 작은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큰 스타트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지분 투자에 나서 몸집을 불릴 수 있단 것이다. 그러면 업종 안에서는 점유율을 넓히고, 투자자들에게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한다.

커머스 분야에서 대형 M&A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타트업도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관련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정확하게 산출되기 시작했고, 엑시트 시점도 다가오는 만큼 대형 딜이 성사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 이이다.

이 이사는 “판은 두 가지로 가고 있다”며 “대형 스타트업들은 펀드를 만들어 작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순서를 밟아서 가고 있고, 작은 스타트업끼리는 서로 지분을 주고받으며 M&A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조 유니콘 원한다면 10조 시장 필요…정책 조정기능 실종이 문제”= 지난해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던 지적에 대해 이 이사는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현금흐름이 좋아 투자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

나19 시대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아닌 ‘시장’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이사는 “원격의료, 모빌리티, 핀테크 처럼 해외에서 유니콘이 많이 나온 영역에 국내 스타트업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니콘이 나올 만한 크기의 시장을 열어주면 그 시장 안의 1등부터 3등까지가 유니콘이 된다”며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조정기능의 실종이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업계에 양질의 인력이 대거 유입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수준은 기업 가치나 투자 유치액이 아닌 조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스타트업이 커지면서 웬만한 대기업 출신들이 임원 등 고위직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졌으며 다양한 영역의 인력들이 충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직의 질”이라며 “최근 벤처투자·스타트업 업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단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다원 기자 leedw@



“무제한 요금제 쓰면 U+초등나라가 무료”

LG유플러스는 17일 초등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 요금과 연계해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G·LTE 무제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에 ‘초등나라팩’을 신설했다. △넷플릭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넷플릭스팩’ △스트리밍 게임 지포스나우(GeForce NOW)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게임팩’ △세계 최초 5G AR 클래스 ‘U+리얼글래스’를 50% 할인받는 ‘스마트기기팩’ △구글 홈 IoT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홈팩’에 이온 다섯 번째 패키지 구성이다.

LG유플러스는 17일 초등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 요금과 연계해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G·LTE 무제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에 ‘초등나라팩’을 신설했다. △넷플릭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넷플릭스팩’ △스트리밍 게임 지포스나우(GeForce NOW)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게임팩’ △세계 최초 5G AR 클래스 ‘U+리얼글래스’를 50% 할인받는 ‘스마트기기팩’ △구글 홈 IoT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홈팩’에 이온 다섯 번째 패키지 구성이다.

‘14대표번호’ 사용처 확대… 코로나 출입명부 관리 활용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
일반기업·기관·상점도 신청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를 기반으로 한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 활용 요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다. 일반 8자리 대표번호와 달리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고 자릿수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해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됐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과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

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의견들을 수렴해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T도 갤럭시S21 지원금 2배 상향 이통사, 가입자 유치 경쟁 가열

최대 50만원 지원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갤럭시S21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예고하자 KT도 하루 만에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16일 KT는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을 26만2000원~50만 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갤럭시S21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최소 2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이다. 전날 KT는 공시지원금을 10만~24만 원으로 예고했다.

KT의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은 △5G 세이프(월 4만5000원) 15만 원 △5G Y틴(월 4만7000원) 22만 원 △5G 슬림(월 5만5000원) 26만2000원 △5G 심플(월 6만9000원) 34만 원 △슈퍼플랜 베이직(월 8만 원) 40만 원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월 9만 원) 45 만원 △슈퍼플랜 스페셜 초이스(월 11만 원) 45만 원 △슈퍼플랜 프리미엄 초이스(월 13만 원) 50만 원 등이다.



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의 상생과 고객 차별 해소를 위해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며 “예고공시는 정식공시가 아니어서 예고 기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SKT는 15일 8만7000원~17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이로써 SKT와 KT·LG유플러스 간 공시지원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SKT는 추이를 지켜본 뒤 인상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내달 8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고, 4조 7822억 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만 3718명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했다. 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했다.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지도,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입교희망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로는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박소는 기자 gogumee@

“IPO 대어 미리 낚자”… 장외시장 투자 열기 ‘후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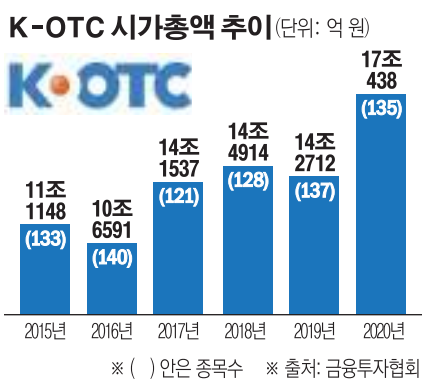
K-OTC, 지난해 시총 17조·거래대금 1조2766억 ‘최대’
올 하루 평균 거래대금 124억…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빅히트 등 공모주 흥행 효과

직장인 박모(30)씨는 요즘 비상장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SK바이오팜의 ‘상장 대박’을 본 뒤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큰 ‘대어’를 낚기 위해서다. 최근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눈여겨본다. 박 씨는 “상장 가능성이 큰 대기업 계열사라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투자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장외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장외 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가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38커뮤니케이션·피스타 같은 사설 장외 시장도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의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24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5억3580만 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뛴 수준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은 143만8781주로 전년 동기 대비(71만7875주) 두 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출범한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 현재 135사가 거래되고 있다. 장외 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공모주 확보에 어려움



을 겪은 투자자들이 상장 전에 일찌감치 주식을 사두는 전략으로 우회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장외시장에 투자자가 몰린 배경엔 ‘SK 바이오팜 효과’가 크다. 지난해 주요 IPO 기업들이 상장과 동시에 파상, 파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뒤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쓰면서다. 작년 6월, SK바이오팜을 기점으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이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시장은 뜨거워졌다.

지난해 연간거래대금은 1조27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K-OTC 시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K-OTC의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17조43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조7725억 원어치 늘었다. 2015년 이래 최고치다.

K-OTC를 뜨겁게 달군 주역은 역시 개인투자자들이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K-OTC도 지난해 기점으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늘면서 현재 94~95% 수준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다음 IPO 타자 역시 몸값도 최고치를 찍고 있다. 올해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고 있다.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지난 6일 170만 원을 돌파한 뒤 지

난 14일 182만7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3형제’와 SK바이오사이언스(SK케이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이노베이션) 역시 ‘IPO 대어’로 꼽힌다.

한편, 대어를 미리 낚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위험 요소가 크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거래량이 적고 정보 비대칭성도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이한테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장외주식의 경우,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투자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거래 과정에서 주식, 자금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기 가능성이 있어 K-OTC, 증권사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저평가받는 지주사… 투자 전략은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활발하다. 삼성그룹은 수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다시 한번 굵직한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정의선 회장체제 후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거론된다.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기업이나 그룹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혹은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체질 개선에 분주한 모양새다.

그런데 투자자로서 불안하다. 몇몇 그룹은 총수 리스크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지주회사 주가 역시 흔들리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 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시가총액은 2조3387억 원(15일 종가 기준)이다. 반면 한화가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시총은 8조8565억 원이다. 지주사보다 4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LG 시총은 18조2911억 원으로 지분

을 각각 30%가량 보유한 LG전자(22조9107억 원)와 LG화학(69조1099억 원)의 기업가치보다도 낮다. 주가는 순자산가치(NAV)의 69% 수준이다.

CJ 역시 45%의 지분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의 시총(6조5787억 원)보다 절반가량 할인된 3조3991억 원으로 기업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 지주사는 자회사가 직접 상장
자회사 가치, 지주사에 적용하면 ‘이중 카운팅’ 문제
“배당 등 주주친화정책 펴 여력 있는 지주사 투자해야”

가치가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지주사가 저평가 받는 것은 지주사의 자회사들이 상장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투자자로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LG화학의 최대주주인 LG보다 LG화학에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게다가 상장된 LG화학의 가치를 LG 지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중 카운팅이 될 수 있어서 지분 가치보다 할인 적용한다.

반면 해외주식은 지주사만 상장된 경우가 많다. 지주사의 가치가 높은 이유다. ‘알파벳’의 경우 자회사인 구글, 유튜브가 모두 비상장사다.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투자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점에서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정책을 펴 여력이 있는 지주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지배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수익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2020년 타격을 입은 에너지 산업 비중이 높은 GS가 차입을 통해 올해 DPS를 유지한다면,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eoml@

기관 보호예수 물량 76만5179주 해제 빅히트, 15만원대 지킬까

투자심리 위축 예상

지난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한 빅히트가 70만 주가 넘는 의무보유확약 물량 해제로 또 한차례 높은 파고를 앞두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히트의 3개월 기관 의무보유확약 물량 76만5179주가 18일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총 의무 보유 확약 물량 428만2309주의 17.87%에 해당하는 규모로, 빅히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 이런 심리가 선반영 되면서 15일 주가는 전일 대비 9000원(5.42%) 하락한 15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빅히트는 상장 첫날 최고 35만1000원까지 치솟았지만, 단 몇 분 만에 최고가가 무너졌다. 이틀째엔 20만 원대를 간신히 지키더니, 사흘 후부터 단 한 번도 20만 원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일 신저가인 14만1000원을 기록한 후반등하는 듯했지만,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 15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시한 빅히트의 목표주가(적정주가) 범위는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2만 원 사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벌써 2개 증권사가 목표주가나 주당순이익(EPS)을 낮춰 제시했다.

빅히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25만6000원에서 22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선화

빅히트 기관 의무보유확약 현황

확약기간	배정수량(주)	비중(%)
6개월 확약	106만3100	24.83
3개월 확약	76만5179	17.87
1개월 확약	132만2416	30.88
15일 확약	20만5463	4.8
미확약	92만6151	21.62
합계	428만2309	100

※ 출처: 빅히트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KB증권 연구원은 “조직을 확장하면서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반영해 4분기와 2021년·2022년의 순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2021년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이 기존 5.93%에서 7.37%로 상향돼 자산유지비용(COE)이 기존 6.60%에서 7.98%로 상승한 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주당순이익 추정치(2020년)를 3649원에서 2986원으로 낮춘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용 측면에서는 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과 월드 투어 관련 일부 비용이 선반영되는 부담이 상존해 일시적 영업이익을 하락 불가피하다”며 “다만 구조적 비용 증가 이슈가 아닌 만큼, 펀더멘털 훼손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4월 16일에 마지막 기관 의무보유확약 물량 106만3100주(24.83%)가 풀리는 것으로 모든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김우람 기자 hura@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 새단장

통계데이터·투자참고자료 등 통합 ‘원스톱’ 조회… 모바일용 화면도 재정비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정보포털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사진>’을 18일에 새롭게 오픈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증시 활황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투자인구 증가로 합리적 투자문화 정착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질의 시장데이터 공급과 함께 시장참여자가 증시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추진됐다.

새롭게 오픈하는 정보데이터시스템은 분산돼 있던 증권·파생상품 시장정보의 통합, 데이터의 시각화, 모바일 활용성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로 나눠 제공되던 통



계데이터 및 투자참고자료를 통합·재편해 원스톱(One-stop)으로 조회가 가능해졌고 각종 수치 데이터를 도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현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 증가추세에 맞춰 모바일용 화면을 전면 재정비하고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를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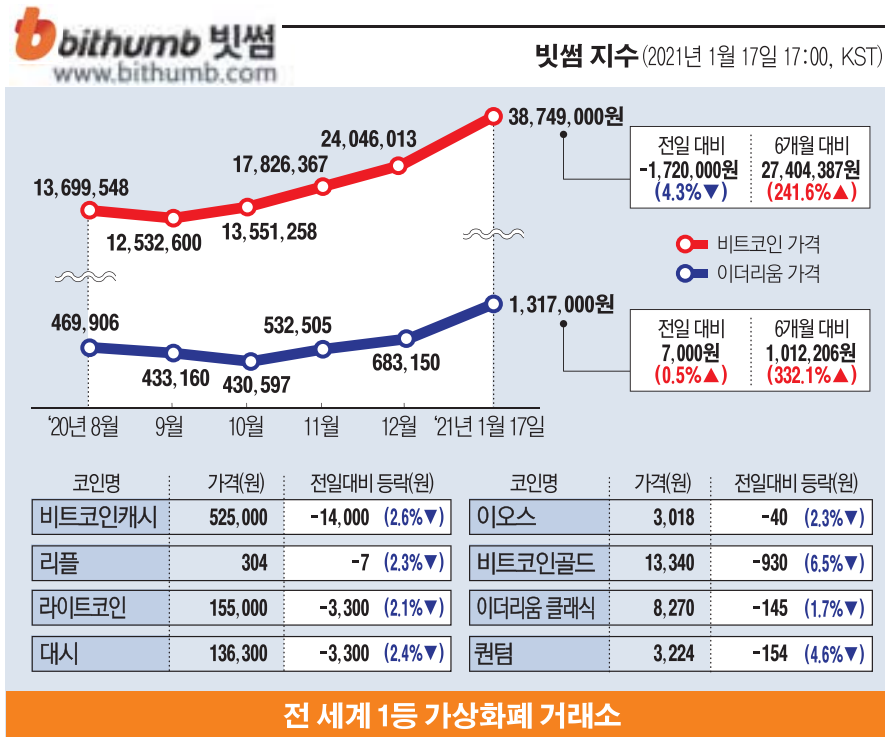
했다.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data.krx.co.kr’을 입력하거나 KRX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중 ‘정보데이터시스템’ 및 링크 배너를 선택해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시장정보, 공매도 종합포털, 증권투자 정보 포털로 접속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데이터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참여자들이 일명 묻지 마, 깜깜이 투자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 상황 및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정부 “사업효과 커” ‘공공재건축’ 동상이몽 잠실5단지 “사업 철회 다행”

사전건설팅 7개 단지 종상향시 용적률 평균 182%P 올라
주택공급 58%↑·분담금 37%↓ 불구 “실익 크지 않다”
기부임대·분양이 걸림돌...은마아파트 등 철회 단지 신고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당장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기존 예상대로 늘어나는 가구 대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환수되는 이익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에서 받을 땀 대규모 구축 단지들은 계속해서 매매가격이 오르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중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건설팅에 참여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종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종 일반주거는 3종 일반주거

로, 3종일반주거는 준주거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은 평균 182%포인트(p) 올라갔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준주거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할 경우 주택공급 수는 평균 58%(최대 98%) 증가했다. 조합원 분담금은 약 37% 줄어든다.

기존 1000가구 규모의 단지에 기부채납 50%를 적용한 모의분석 결과, 민간 재건축은 1410가구로 1.4배 늘어났다. 공공재건축은 2240가구로 2.2배까지 확대됐다.

공통적으로 조합분 1000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민간 250가구에서 공공 510가구로 2배 증가했다. 대신 기부임대가 160가구에서 400가구로 3배 넘게 늘고, 기부분양 330가구가 새로 추가됐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이같은 결과를 공공재건축 사전건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회신했다. 7개 단지는 △

민간재건축과 공공재건축 차이				기존 1000가구 단지 재건축 모의분석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민간		공공			민간	공공
재건축 조합원	사업 시행	공공시행사 (민간 브랜드 사용 가능)		용적률	300%	500%
250% → 300%	용적률 규제	250% → 500% (최대 50층)		가구수	1410 (1.4배)	2240 (2.2배)
증가 용적률(50%)의 50% 환수	기부 채납	증가 용적률(250%)의 50~70%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조합분 일반분양	1000(71%)	1000(45%)
				기부임대	250(18%)	510(23%)
				기부분양	160(11%)	400(18%)
				기부분양	—	330(15%)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중랑구 목동장미아파트(100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0가구)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가구)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가구) △용산구 강변(146가구)·강서아파트(32가구) 등이다. 비공개를 요청한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가구)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단지들의 최종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6개 단지가 모두 공공재건축에 나선다 해도 총 공급 규모는 현재 1412가구에서 2231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던 공공재건

축 사업 목표치의 4.46%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구축 대단지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모의분석 결과처럼 기부임대와 기부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주요 단지들이 잇달아 발을 돌렸다. 대표적인 단지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다. 강남권 노른자위의 두 대어 단지는 공공재건축 철회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은마아

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8일 24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해 8월 23억8000만 원의 신고가 이후 주춤하다가 최근 반등하면서 최고가를 2000만 원 더 높였다. 동일 평형의 현재 매도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24억~25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1.75㎡형도 지난달 30일 22억8100만 원에 매매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수의 직전 거래인 지난해 5월 20억8000만 원에서 2억 원 넘게 치솟은 가격이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거의 없고 어쩌다 거래되면 최고가를 찍기 일쑤”라며 “최근 공공재건축 신청 철회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시장 침체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거나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 주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올해 들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다 ‘공공재개발’ (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매매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빌라 매매거래는 15일까지 70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363건)의 2배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4620건으로, 전월(4268건)과 비교해 8.2%(578건) 늘었다. 신고 기간이 아직 2주가량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매매건수는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도 뛰면서 빌라 구매로 돌아선 수요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빌라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난에 재개발 기대 롯데 높아진 서울 빌라

거래 두 배 늘고 매맷값도 ‘껍충’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881만 원에서 3억1946만 원으로 2065만원 올랐다. 앞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간 상승분(2078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2억26만 원에서 12월

2억1641만 원으로 1433만원 올랐다. 직전 2년 1개월 동안 오른 전셋값(1428만원)과 비슷한 액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도 빌라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1구역에 있는 전용면적 22.35㎡(대지지분 30.31㎡)짜리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10월 4억3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작년 2월 3억7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빌라보다 2~3배 가량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투자 수요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위뉴타운에 있는 전용 32.85㎡(대지면적 19.13㎡)형 빌라는 매매가격이 지난해 7월 2억2900만 원에서 12월 4억12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1억8000만 원 넘게 치솟았다..

이정필 기자 roman@

장위15구역 재개발, 서울시에 ‘3전 3승’

市, 무리한 정비사업 해제 하점 드러내
조합설립 궤도...구역내 갈등봉합 과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을 했다. 무리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14일 장위15구역 추진위가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지 2년 여만이다. 당시 서울시와 성북구는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묻는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못 미쳤다고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장위15구역 추진 위 측은 3전 3승을 거뒀다. 2019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토지주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행한 의견조사에 기초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항소 등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 기각, 심리 불속행 결정(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내리며 원고인 장위15구역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등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종로구 사직2구역이 서울시와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하려 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장위15구역 추진위는 법원 결정으로 조



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위15구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이행되면 분양 2464가구, 임대 420가구 등 2884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 69%를 확보한 조합은 동의율을 75%로 높여 올해 중 조합을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장위15구역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면 구역 내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자 일부 주민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15-1구역이란 이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했다.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성북구 등에 장위15구역에서 15-1구역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장위15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등이 포기한 상고심을 주도한 것도 15-1구역이다.

장위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장위15구역이 33층까지 올라가는데 15층짜리 가로주택정비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셋째 주에는 ‘위례 자이 더시티’의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에서 약 5000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다만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한곳도 없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11개 단지에서 4889가구(일반분

양 3639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과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29곳이다. 수억 원대의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도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 자이’, 창곡동 ‘위례자이 더 시티’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17개 단지에선 정당계약을 받는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충남 아산시 마정면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8 (월)	접수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A2-6 (~1/19)	1/20 (수)	접수	부산	동구	수정동	모티다베스트빌 1순위(기타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블루 ♣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동한국아델리움57에듀힐즈 1순위(기타지역)	
	발표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자이(1단지)		발표	경기	고양시	도내동	원흥베네하임Ⅲ ♣	
					판교밸리자이(2단지)					지축동	고양지축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판교밸리자이(3단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계약	서울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5BL) (~1/24)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양천구	목동	목동블루 ♣		계약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고덕센트럴 (~1/29)		
경기		화성시	안녕동	화성태안3A1(국민임대) (~1/22)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2순위			
			화성태안3A2(국민임대) (~1/22)		접수	부산	동구	수정동	모티다베스트빌 2순위			
대구	중구	서생로1가	중앙로역푸르지오더센트럴 (~1/20)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동한국아델리움57에듀힐즈 2순위			
1/19 (화)	접수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1) 1순위	1/21 (목)	발표		고양시	원흥동	고양삼송A24(행복주택)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3) 1순위					장항동	고양장항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4) 1순위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S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1순위(당해지역)						과천지식정보타운S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	동구	수정동	모티다베스트빌 1순위(당해지역)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8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동한국아델리움57에듀힐즈 1순위(당해지역)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A34(행복주택)				
	세종	세종시	소담동	행정중심복합도시3-3M2(국민임대) (~1/21)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개울&더샵퍼스트			
	발표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A2-6		계약	경기	고양시	도내동	원흥베네하임Ⅲ ♣	
		강원	강릉시	내곡동	강릉자이파인베뉴		1/22 (금)	발표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5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의왕시	초평동	의왕초평A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계약	충북	청주시	가경동	가경아이파크5단지 (~1/22)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LH센트럴힐(공공분양)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그랜드마크 I (D1-1) (~1/22)		경남	창원시	명곡동	창원명곡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호반써밋그랜드마크Ⅲ(D2-1) (~1/22)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1) 2순위								
1/20 (수)	접수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3) 2순위	1/23 (토)	계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그랜드마크Ⅱ(D1-2) (~1/26)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C4) 2순위						호반써밋그랜드마크Ⅴ(D3-1) (~1/26)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1순위(기타지역)						호반써밋그랜드마크Ⅶ(D3-2) (~1/26)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REPS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안전망 보완이 먼저”

경찰, 대응체계 전면 쇄신 나서
의심 신고 활성화·미혼모 지원
3월부터 피해아동 분리 시행도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영·유아 사망 사건=16일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한 지 두 시간 만에 도주했던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기가 발견된 빌라에서 거주하던 여성은 자신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 창문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처지를 비관해 9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휴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택 내부에서는 B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인천지법에서 3살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일벌백계’ 여론 높아=영·유아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체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 씨는 정인 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 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은 뜨겁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 첫 공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들을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재발 방지 나서=영·유아 사망 사건이 줄을 잇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 안전망 보완이 더 시급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동학대의 의심 신고를 활성화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안전망을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영 기자 pgy@



마스크 쓰고 실기고사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조형대학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재계 선처 호소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년 4개월 만에 18일 결론난다. 특별검사 측이 중형선고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뇌물공여 액

수’와 ‘양형’이다. 앞서 열린 1·2·3심에서 뇌물 혐의 자체는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수동적 지원’이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정 외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7년여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기영 기자 pgy@

“바뀐 기준 통지 않고 전담여행사 취소 위법”

대법 “갱신제 본질 위배”

중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3월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일부 변경하고 기준 점수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이라도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전담여행사는 지정취소하는 내용의 갱신제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다만 이를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해 약 70개 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갱신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감점 사유만으로 지정취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사 손을 들어 줬다.

반면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A 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은 갱신제 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www.nanam.net

나남
nanam



“관객 없인 뮤지컬도 없다… 시장 살릴 ‘핀셋 대책’ 필요”

W 기획 인터뷰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뮤지컬은 노동집약 산업이다. 전체 제작비의 60%가 인건비에 투입된다. 하룻밤 공연에 150~200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셈이다.”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호소했다. 2018년 선출 이후 임기의 절반 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씨름해 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좌석 간 두 칸 띄어앉기가 적용되면서 공연계는 파산 직전이라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15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뮤지컬협회 사무실에서 이 이사장을 만났다. 2.5단계 연장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터뷰 다음 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연계 좌석 띄어앉기도 ‘두 칸’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다.

“집단적 목소리를 내려 한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도 분명 있다. 공연계를 두고 집단 이기주의란 말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연계 종사자의 생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 공연 산업에도 핀셋형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연계는 연간 뮤지컬 제작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을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뮤지컬제작자협회에 따르면, 1000석 이상의 대형 뮤지컬 한 편에 참여하는 배우는 평균 30명, 스태프는 80~100명에 달한다. 무대에 세워지는 1년 평균 45~50편의 공연에 1만 명의 생계가 쏠린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된 공연이 전체 뮤지컬 작품의 63.1%에 이른다. 사실상 ‘셋다운’ 상태다.

“뮤지컬 대형 제작사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작사의 편익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 제작사들이 공연시장에 종사하는 80%가량의 예술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 스태프들

좌석 간 두 칸 띄어앉기 이후
공연계 벼랑끝 몰려 파산 직전
전체 작품의 63.1% ‘줄취소’

뮤지컬은 독자적인 문화 산업
전략적이고 보완된 정책 절실

이 지난 1년간 직업을 잃고 개인 파산 신청하는 상황을 봐야 했다. 택배, 배달업 등으로 이직한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뮤지컬 종사자들이 ‘핀셋 방역 지침’을 호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공연계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공연장 내 감염전파 0%를 기록했다. 좌석 띄어앉기가 없던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QR코드 확인,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접촉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킨 덕분에 ‘방역 모범 업계’로도 꼽힌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유일하게 공연되는 나라로 뉴욕타임스, BBC 방송 등 세계적인 언론에서 방역 모범 사례로 기획 보도되기도 했다.

“뮤지컬은 공연 비즈니스다. 공연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전 세계 공연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한국의 공연장은 움직였다. 한국의 뮤지컬은 전 세계 관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믿고 보는 시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뮤지컬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좌석 띄어앉기 지침 변경 및 보완을 강조했다. 타 산업과 달리 전체 제작비의 60%가 인건비인 노동집약산업인 뮤지컬은 손익 분기점이 60%인 구조다. 공연장에 관객이 60% 이상 채워졌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 현재 한 칸 띄어앉기(객석 점유율 약 50%)와 두 칸 띄어앉기(객석 점유율 약 30%)로는 공연을 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공연을 할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관객은 공연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다. 관객 없이 공연은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공연 관객들은 스스로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동반자 외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정서적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 연인, 지인은 함께 보고, 좌석을 거리 둔 채 다른 관람객들의 좌석을 제공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와 소통하는 당사자로 수없이 나섰다.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뮤지컬만을 위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뮤지컬

을 독립적인 문화 산업 장르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던 결과다.

“뮤지컬은 오페라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넘어가 산업화된 장르다. 그런데 한국에선 예전부터 ‘연극’으로 인식됐다. 그 영향으로 비즈니스, 구성 방식, 풍토가 전혀 다른 데도 연극의 한 ‘과’로 포함된 현실이다. 지난해 처음 뮤지컬을 별도로 인정해줬다. 서울시 공연 회생 프로젝트 지원금을 통해 70단체에 1000만 원 씩 지원금이 나갔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뮤지컬 종사자 300명이 5개월간 150만 원의 생계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국내 대형 뮤지컬 제작사 10곳(PMC프리덕션, 신시컴퍼니, 클립서비스, 오디컴퍼니,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EMK뮤지컬컴퍼니, CJ ENM, 에이콤,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쇼노트)이 한국뮤지컬제작협회를 출범시켜 정

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공동 호소문을 내고,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한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뮤지컬협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니언’은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다.

“대규모 제작사들은 뮤지컬이 순수 공연 예술에 속해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뮤지컬은 민간 차원에서 비즈니스 하기에 바빴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도 사실이다. 다른 예술 영역은 시나리오, 감독, 배우 협회 등이 따로 있는데 뮤지컬은 뮤지컬협회 안에 제작, 창작, 배우, 스태프, 극장, 학술 등 여섯 개의 분과로 있었다. 한국뮤지컬협회라는 우산 아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들이 모여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대형 제작사 중심의 뮤지컬제작자협회 필요성이 제기됐고, 출범하게 됐다. 한국뮤지컬협회는 더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업계 전체의 생태계 부분에서 영향을 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익을 위한 조직은 얼마든지 세분화돼 좋다.”

국내 여성 공연전문기획자 1호인 그의 계획이 공금했다. 이 이사장은 1990년 동숭아트센터 기획부장을 시작으로 공연기획사 ‘컬티즌’ 운영, 서울예술단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뮤지컬과를 설치했고, 현재는 서울예술대학에서 예술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뮤지컬협회 9대 이사장은 ‘열정적’이다.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났지만, 연임 요청은 일단 사양한 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임기 연장’ 중인 상황이다.

“평생 설립취지를 쓰고 산 것 같다. 불모지에서 총알받이 역할을 해왔다. 나를 움직이는 말은 ‘네가 필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말이다. 무모한 상황이라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일은 나를 움직였다. 앞으로도 뮤지컬계가 필요로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 생각이다.”

김소희 기자 ksh@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GDP 10% 외식업…자영업자 맞춤형 서비스 승부”

소상공인 식자재 플랫폼…박상진 오더플러스 대표

코로나19 사태에 고객들 타격…초기엔 자사 매출도 급감
“대면구매하던 분들 우리 플랫폼 찾는 거 보며 책임감 느껴”

“식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외식업만 해도 연간 120조 원, 관련 유통과 생산까지 하면 식품 산업은 200조 원으로 GDP의 10%가 넘는다. 반도체만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많은 국민이 이 산업에 관련돼 있다.”

오더플러스는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식자재를 비교하고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대기업부터 도매시장까지 50여 개 업체, 총 14만 개 식품이 입점해 있다.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 비교, 빠른 배송 및 반품,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점으로 꼽는다. 전문성 있는 MD(상품기획자)는 식당마다 일대일 매칭으로 식자재를 어디서 구매하면 좋은지를 추천하고 상담한다.

송파구 소재 오더플러스 본사에서 만난 박상진 대표는 “현재 유사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선호한다”며 “한 달이나 육 개월 정도 쓰시면 세 시간 긴급 재배송 서비스, 외상 서비스 등 편리하고 친절한 고객센터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다 2014년 현재 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엔 맥주와 맥주집을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오마이비어)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규제에 막혀 적절한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려웠다. 이때 맥주집 사장들이 식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착안, 현재 서비스를 생각해 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사업을 구상했다.

창업 7년 차인 오더플러스는 매년 매출액이 200% 성장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문건수는 2016년 8531건에서 △2017년 5만 3658건 △2018년 14만22건 △2019년 25만4476건 △2020년 46만8307건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원 수도 9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인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갈 순 없었다.

박 대표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터졌을 당시 매출이 급감해 매우 힘들었다”며 “우리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식당 사장들에게 전화하면 폐업을 한다거나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마음이 좋지



소상공인 식자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진 오더플러스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매출이 급감해 힘들었다”며 “이후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이나 마트에서 대면으로 구매하시던 분들이 우리 플랫폼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식당의 생계와 생존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이나 마트에서 대면으로 구매하시던 분들이 우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서비스도 이들에게 맞게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더플러스는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다. 배송이나 테이크아웃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밀키트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다. 또 현금 유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외

상정책도 준비 중이다. 언제든지 원할 때 아무 때나 결제할 수 있는 외상자유이용권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이들을 고려해 장학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박 대표는 “기존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최저가격이나 적절한 상품을 찾아 드리는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지향적으로 업무 방식을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마케팅이나 디자인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美 국무부 2인자에 북한통 웬디 셔먼

클린턴 때 국무부 고문…정무차관엔 對러 강경파 놀런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사흘 남겨둔 가운데 대북 정책 준비도 마무리했다. 차기 국무부 인선에 북한통을 대거 지명하면서 대북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국무부 부장관으로 웬디 셔먼(왼쪽 사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 센터장을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직책상 네

번째로 높은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던 셔먼 지명자는 이번 지명으로 이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셔먼 지명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고문으로 재직했고, 이 기간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은 바 있는 대표적인 북한통 전문가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엔 이란 핵협정에 주요 협상가로 활약하는 등 핵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기도



하다.

정무차관엔 러시아 강경파로 불리는 빅토리아 놀런드(오른쪽)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됐다. 로이터통신은 셔먼과 놀런드 모두 외교 배태망으로 국무부 활동에 많은 경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문가로 평

가받는 등 이날 지명 절차가 마무리된 차기 국무부엔 북한 전문가가 대거 포진하게 됐다.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부장관 시절 뉴욕 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선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나의 신념을 구현해 줄 것”이라며 “이들이 외교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십 회복에 도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군산대 사무국장 염기성 △안동대 사무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박난숙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이난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권성연 △ (국방대학교 파견) 최성부 △ (세종연구소 파견) 김우정 △ (국외훈련 파견) 유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국립외교원 파견 송재성 △국방대학교 파견 김홍재 ◇과장급 △생명연구지원과장 김영혜 △세종연구소 파견 박진희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지방자치분권실장 박성호 △재난관리실장 최복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최장혁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영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안용덕 ◇국장급 파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박성우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순연 △ (국방대학교) 전한영 ◇과장급 전보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노영호 △교육훈련(세종연구소) 남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자유무역협력정책관 양기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 김홍주

◆보건복지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은영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중앙노동위

원회 상임위원 김민석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우진 △고용지원정책관 민갑수 △통합고용정책국장 황보국 △직업능력정책국장 송홍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성룡 △외국인력담당관 정해영 △고용보험기획과장 엄대섭 △여성고용정책과장 임동희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고위공무원(국장급) 조라정 △과장급(3급 상당) 이경숙

◆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활용과장 김준경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문홍길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안전기준과장 오맹호 △생활방사선안전과장 강정원

◆한국투자공사(KIC) ◇부서장 보임 △부동산투자실장 이승걸

◆수출입은행 ◇상임이사 △권우석 ◇부서장급 [승진] △전대금융부장 유광훈 △아프리카부장 이형정 △북한·동북아연구센터장 김정만 △홍보실장 장유수 △창원지점장 조정화 △구미출장소장 정정환 [신규 보임] △남북교류협력부장 박희갑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김환우 △디지털전환추진부장 김주홍 △바이오서비스금융부장 구자영 △여수출장소장 최정훈 [전보] △기업구조조정담당장 모창희 △심사평가담당 옥영철 △해외경제연구소장 이상현 △자금시장담당 이동훈(전 홍보실장) △디지털금융담당 박익환 △경영혁신추진부장 김진섭 △인사부장 이원국 △인재개발원장 이종복

△혁신금융총괄부장 김호준 △정보통신금융부장 황정옥 △모빌리티금융부장 이동훈(前인사부소속) △해외사업총괄부장 정순영 △인프라금융부장 양구정 △플랜트금융부장 권원협 △자원금융부장 조현석 △중소중견금융총괄부장 정현수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손영수 △무역금융부장 이재홍 △동아시아부장 홍순영 △서아시아부장 손승호 △남북경협부장 주상진 △리스크관리부장 이태균 △여신감리부장 이춘재 △윤리준법부장 박진오 △안전운영부장 차 실 △경협평가부장 장성호 △대구지점장 박유환 △대전지점장 이운창 △상해사무소장 우정현 △마닐라사무소장 문재정 △다카사무소장 전시덕 △호치민현지법인장 이원형 △심사평가단(수석부장) 김수현 △인사부소속부장(연수) 이익수 △인사부소속부장(연수) 정민주

◆우리카드 ◇전무 승진 △경영기획본부 조성락 ◇상무 승진 △오토금융본부 양일동 △미래성장본부 서영호 ◇부서장 승진 △영업추진센터 이종희 △은행영업부 한승원 △오토금융부 이주원 △서울지역센터 과호석 △경인지역센터 박희준 △글로벌신성장부 한철희 △검사실 양준호 ◇선임 △마케팅전략본부 이인복(상무대우)

◆SGI서울보증 ◇부서장 승진 △심사부수석 한진환 △디지털지원부 박인규 △중부분부 수석 최두현 △호남신용지원단 박종선 △안산지점 반미애 △비서실 전문건 △상품개발부수석 서재일 △상품개발부 수석 김지룡 △국제

부 권순용 △심사부수석 최용서 △정보시스템부 수석 추병석 ◇부서장 전보 △성남지점 강광신 △구로디지털지점 배세남 △강남지점 양경주 △강남신용지원단 최규송 △세종지점 홍성우 △대구지점 김기성 △영등포지점 민광래 △심사부 객재현 △세종로지점 최병철 △영남보상지원단 이웅인 △종로지점 김석근 △서면지점 정흥찬 △신용평가부 이상용 △기획부 박정울 △총무부 김진우 △신논현지점 이정석 △마케팅지원부 신종기 △원주지점 송수현 △선릉지점 류창우 △안양지점 장갑정 △의정부지점 류기형 △신용보험지원단 강돈영 △경원보상지원단 손창기 △전주지점 김형선 △충청신용지원단 김종필 △광주지점 조상용 △일산지점 신현묵 △화성지점 신명철 △정보시스템부 이진석 △여수지점 박하두 △동래지점 박현숙 △IT지원부 박정훈 △특별채권부 강만성 △김해지점 김강희 △대전지점 정희철 △구미지점 임천우 △상품개발부 손명룡 △매출채권부 유용수 △목포지점 김현창 △자산운용실 김영일 △구상지원부 이진원 △음성지점 임진호

◆전자신문사 ◇승진 △마케팅 총괄 상무이사(경·광고국장) 홍승모 △편집국 취재2부국장 장지영 △ 경제금융증권부장 갈재식 △전보 △편집국 정치정책부장 김원석 △ ICT융합부장 이호준 △고객서비스국 발송부장 이종천 △미디어인쇄국 미디어인쇄부장 이필복 △ 미디어인쇄부 윤전팀장(부장) 한금용 △ 미디어인쇄부 전산제작팀장(부장) 강봉기 ◇파견 △광고마케팅국 마케팅지원팀장(부장) 윤대원

문미옥 前 과기정통부 차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임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임 원장에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5일 제294차 이사회를 열고 제15대 STEPI 원장으로 문미옥 전 차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3년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18일 열린다. 신임 원장은 앞으로 경영 성과와 연구 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문 신임 원장은 제 20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과기정통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김은수 한화갤러리아 대표
30대 대한사격연맹회장 선임

한화갤러리아는 김은수 대표이사(가제30대대)한사격연맹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마감된 연맹회장 입후보 등록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사격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 후보자 출마에 대한 정관 규정에 따른 후보자 심사절차를 거쳐 김은수 대표를 제30대 대한사격연맹회장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2021년 1월 26일부터 4년간이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사격에 대한 애정과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2002년부터 대한사격연맹회장으로 지원하며 한국 사격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19년간 한화그룹의 지속적인 후원에 힘입어 한국 사격은 2002년 부산아시아나 게임을 신포환으로 후원 기간 개최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놓치지 않았다. 남주현 기자 jooh@

유승경 前 정치경제연 대안 부소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

유승경(5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전 부소장이 15일 제3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유 원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부음

▲이운성 씨 별세, 이희수(한양대 명예교수)·희재(우성아이비 대표이사)·희욱(성균관대 교수)·민희(문화해설사) 씨 부친상, 당성중(사업) 씨 장인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7시, 02-3410-6915

▲나학중 씨 별세, 나재수(한국의료재단 이사장)·득수(전 우리은행 미주본부장)·예만·옥자(서양화가) 씨 부친상, 유정수·이은주·명지혜 씨 시부상, 우중수·강신소(자영업) 씨 장인상 = 16일, 서울삼육병원 추모관 13호, 발인 1월 18일 10시, 02-2215-4444

▲최기순 씨 별세, 홍윤희·성희·주희·옥희·일희·미희(경북대 치과대학 교수) 씨 모친상, 강호용·안희정·김진근·송영식·박건수(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씨 장모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58-5940

연원호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거든 현재든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누군가가 주는 위협감에 근거한 것일 게다. 중국 전국시대에는 진나라의 강력한 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각국의 합종연횡이 벌어졌다면, 현재 중국이 각국에 주는 위협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부상과 더불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요즘이다.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세계 주요국의 행태를 연구할수록 약 2300년 전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와 이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올 정도다.

중국의 전국시대를 묘사하는 표현 중 합종연횡(合縱連橫)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말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진다는 뜻으로 한 단어처럼 종종 사용된다. 면밀히 말하면 합종(合縱)과 연횡(連橫)은 다르다. 합종책은 연(燕)나라 재상 소진(蘇秦)이 주장한 것으로,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남북 중(縱)으로 위치한 연(燕)·제(齊)·조(趙)·위(魏)·한(韓)·초(楚)의 여섯 나라가 동맹을 맺는 정책을 말한다. 연횡책은 진(秦)나라 재상 장의(張儀)가 주장한 것으로, 강국 진나라가 이들 여섯 나라와 동서 횡(橫)으로 각각 동맹을 맺어 전국을 다스리는 전략이다.

이를 최근 미중 간 경쟁 구도에 대입해 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일방적 정책을 활용했지만, 대중(對中) 압박을 위해

사후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합종책을 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은 주요국들과 양자 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횡책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합의된 유럽연합(EU)-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 체결이 대표적 예다.

다만 내용 면에서 과거와 크게 다른 한 가지가 눈에 띈다. 중국 전국시대의 합종책은 당시 최강국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펼쳐졌던 반면, 현재 미중 간 경쟁 시대의 합종책은 패권국 미국이 아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과거든 현재든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누군가가 주는 위협감에 근거한 것일 게다. 중국 전국시대에는 진나라의 강력한 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각국의 합종연횡이 벌어졌다면, 현재 중국이 각국에 주는 위협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부상과 더불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중 간 대립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대선 직후인 작년 11

월 16일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새로운 행정부의 통상 관련 3원칙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 둘째는 노동 및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통상 교섭, 셋째는 제재 관세 등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의 대중 통상정책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분야 육성에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내 제조’, ‘미국 산 구매’, ‘미국 내 혁신’ 정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기술력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 탈동조화(tech-decoupling)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노동 및 환경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은 ‘가치’ 중시와 일맥상통한다. ‘인권’이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이나 ‘보건’과 같은 가치에 있

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제재 관세와 같은 징벌적 수단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점 역시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면모를 보여준다.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동맹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비용과 책임을 나누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해온 만큼, 대중 압박 정책을 취하기 전에 동맹국들과 사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시기에는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뭉개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가능했을 수 있었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사안마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름의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끊임없이 확보하여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되는 상당히 난처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 프리즘

권 오 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전 SK 사장



미국 최남단 키웨스트 섬에서 만난 기아 자동차 로고는 연민이자 감동이었다. 인구 3만 명의 이 조그만 지역에서 몇 대나 판다고 이 먼 곳까지 왔을까, 연민이었다. 그런데 도로 위를 달리는 기아차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었다, 감동이었다.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구나, 새삼 가슴이 벅차올랐다.

로고는 그만큼 감성적이다. 한 회사의 얼굴이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붉은 타원형 로고가 바뀌었다. 1월 6일 움직임(Movement that inspires)을 주제로 한 새로운 로고<사진>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1999년 기아차를 인수하면서부터 로고와 사명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내실은 완전히 바꿔놓았다. 품질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 문화도 일신했다. 기아차는 현대차가 다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주인이 바뀌면 옛 주인은 잊힌다. 로고까지 바뀌면 과거의 기아차는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정의선 신임 회장이 역사를 소환했다. 그는 취임 인사에서 기아자동차의 창업자 김철호 회장(1905~1973)을 언급하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김철호가 누구인가? 어린 나이에 배가 고파서 간 일본에서 그는 볼트와 너트를 가공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다. 돈을 꽤 모은 그는 귀국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를 세웠다. 그때 만든 ‘3000리 자전거’가 지금의 삼천리 자전거이고 그때 만든 기아산업이 지금의 기아자동차가 됐다. 1973년 6월에는 일관공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장을 세웠다. 지금의 기아 소하리 공장이다. 이 모든 역사는 김철호가 1944년 귀국해 만든 경성정공에서 시작된다.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보다 역사가 길다. 업종 전문화의 상징으로, 소 유경영 분리의 대표적 기업으로 꼽혀 재벌

정의선의 역사소환

을 비난할 때면 그 대적점에 꼭 기아차가 있었다. 전경련 회원이면서 다른 회원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회사였다.

정의선이 소환한 역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김철호의 기아차는 현대, 대우, 쌍용 등 자신보다 덩치가 큰 대기업과 늘 경쟁했다.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한국 최초의 컨버터블 로드스터 ‘열란’이나 세계 최초의 도심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처럼 끊임없이 두드리고 도전했다. 대기업과의 경쟁은 가혹했으되 그로 인해 혁신은 끊임없이 이뤄졌다. 차별도 받았다. 전두환 정부 때는 아예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했다. 강제적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때문이었다. 그러자 승합차 ‘봉고’를 개발해 공전의 히트를 쳤다. 이 또한 혁신의 선물이었다.

정의선 회장은 청운동 정주영 회장 자택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2018년 수석부회장에 오른 뒤에도 정문과 로비로 출근하지 않았다. 1층은 아버지가 다니는 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면서 아버지를 따랐다. 그러나 항상 정장을 차려입었던 아버지와 달리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짧은 머리 모양으로 신차 발표회에 나오기도 했다. 변화의 메시지였다. 디자인 경영과 파격 보증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변화의 실행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통해 위기를 이겨내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은 거침 없는 변신을 예고했다. 세계 몇 위의 생산량에 매출액 얼마라는 계량적 목표보다 인류, 행복, 미래라는 움직임(movement)을 제시했다. 변화의 중심점에 선 젊은 총수는 역사를 소환하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관통하는 동력으로 혁신을 선택했다. 몇 년 전 키웨스트에서의 낯선 경험이 혁신으로 융합되어 현대차의 미래로 펼쳐 지기를 기대해본다.

☆ 몽테스키의 명언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일삼은 주(周)나라 제10대 여왕(厲王)이 국민(國人) 폭동으로 쫓겨난 후,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 둘이 왕을 대신해 함께 집정한 14년간을 이르는 말이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해 정무를 보았다고 해서 이를 ‘공화(共和)’ 혹은 ‘주소공화(周召共和)’라고 한다. 지금 쓰는 ‘공화제(共和制)’란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출전 사기(史記).

☆ 시사상식 / 프로토콜 경제(Protocol Economy)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 비즈니스 환경과 그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로,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복제·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하면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비위 맞추다
‘비위(脾胃)’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비장(脾臟·지라)과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胃腸). 이 둘이 협력해야 소화가 잘되듯 남의 마음에 들게 해주는 일을 뜻한다.

☆ 유머 / 대수술
동료 의사가 “뭐해? 빨리 와! 기다리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이번 고스톱 판은 무지 케!”라고 하자 남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남편의 안색을 잔잔히 살피면서 “중환자인가 보죠?”라고 말하자 남자가 웃을 입으며 한 말. “그런가 봐. 지금 의사 셋이 매달려 있단나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윤 기 뽀 IT중소기업부/ modest12@



20년 전 데자뷔, 세상을 바꾸는 건 디지털뿐?

모습이다.

생존과 연관돼 있는 전환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주문은 진작 나왔던 서비스다. 유튜브나 SNS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지도 오래다.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 제조공장이나 스마트 의료, 5G·AI 융합

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정책들이다. 모두가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해묵은 키워드가 국가 비전으로 튀어나오면서 고개를 가웃하는 이들도 있다. 현장에서는 위의 광고 속 할머니처럼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지원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AI(인공지능)나

윤종원 행장의 결단에 주목한다

‘정치-관료-기업-은행-노조’
우리 경제구조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사슬관계다. 때론 이들이 비효율적으로 엮였을 경우 사달이 난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랬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변화의 계기가 됐다. 전자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정치적 역량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도개혁은 경제적 파탄에서 흑독한 구조조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후자는 이른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던 기업과 정권이 사슬을 끊는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첫 번째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해체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정경유착이 드러나 국회와 시민 사회로부터 해체 요구에 시달렸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4대 그룹을 시작으로 회원사들이 잇따라 전경련을 탈퇴했다. 두 번째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이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의 사슬관계가 기업의 후퇴와 노동조합의 전진을 이뤄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기업은행 노사는 2월과 3월 각각 김정훈,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논의에 착수했다.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지난해 1월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기업은행 노사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행장이 ‘낙하산 행장 반대’ 투쟁에 나선 노조를 달래기 위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다. 당시 윤 행장과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노사공동 선언문’에 함께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차이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윤 행장이 제정한 뒤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윤 행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시장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놓고 노조의 개입은 고유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치화된 노조가 더욱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또 적대적 성향의 노사관

계가 많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한 독일 등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것이다. 회사 전체의 발전보다는 노동자의 이익만 내세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B금융이나 국책은행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산됐던 이유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한 명이다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걸 두고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적당히 대주주의 입장을 맞춰주면서 고액의 보수를 챙겨 가는 사외이사들이 많은 현실에서 독립성 확보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사가 경영 정보와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게 되면 소모적인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 현안에 함께 책임을 지게 되면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래된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채용비리, 셀프 연임 논란 등 금융권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실상 경영진의 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열린 자세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제도라도 문화적 토양이 맞지 않으면 뿌리내리기 어렵다. 노조에게도 당부한다. 타협보다는 파업 등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대적 노조 문화는 선진화된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문제를 초래한다.

acw@

사설

비자발적 실직 사상 최대, 취약계층 피해 집중

작년 직장의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처음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과 영세 사업장 등의 실직자가 대다수로, 코로나19 피해가 이들에 집중됐음을 드러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다. 지난해 말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전년(147만5000명) 대비 48.9%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급증했던 2000년(186만 명)보다 많은 최대 규모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일하고 싶은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다.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실직자가 110만5000명(25.6% 증가)에 이르렀고,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의 이유가 48만5000명(42.6%)이었다. 증가폭은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가 34만7000명(129.8%), ‘직장 휴·폐업’이 25만9000명(149.0%)으로 전년의 갑절을 훨씬 넘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이 특히 컸다. 임시근로자의 실직이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일용근로자 51만 명(23.2%), 상용근로자 40만 명(18.2%)이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21만 명(9.6%)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

만1000명(1.9%)을 훨씬 웃돌았다. 임시·일용직과 ‘나홀로 사장’의 자영업자에 실직이 집중된 것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의 저임금 근로자 실직자 비중이 27만4000명(12.5%)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도 종업원 1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65.3%에 달했다.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냥 쉬는 등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내려앉은 사람이 159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추락하는 지표만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 쏟아부어 관제(官制) 일자리를 만들어보려 애쓰지만, 단기 알바성 노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말고 별 성과가 없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도 안 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소멸의 코로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집착한다.

일자리란 국민소득의 원천이자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실직자 급증은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일자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움직이고 투자를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계속 기업 숨통만 죄는 법만 쏟아내고 있다. 불황과 고용대란은 심화하고, 취약계층 피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트북을 열며

유현희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쿠팡과 마켓컬리가 쏘아올린 새벽배송은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코로나19로 집콕이 늘면서 커진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뛰어들었고 새벽배송 이용 고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엠·리테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국내 만 20세 이상 소비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결제 금액 데이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결제된 금액은 2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만이 이커머스의 성장을 이끌었을까.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규제를 먹고 성장했다’는 데 공감한다. 이커머스는 지난 10년간 규제 치외법권이었다.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율적인 경쟁을 벌인 결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유통공룡을 뛰어넘는 쿠팡이 탄생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같은 기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을 해야 했고 출

“이커머스, 규제보다는 상생을”

점에 제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저런 규제를 끼워넣으면서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채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수혜는 고스란히 이커머스로 옮겨갔다. 이쯤 되니 ‘이커머스가 규제를 먹고 컸다’는 유통업계의 지적은 묘하게 이커머스가 아닌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공평하게(?) 온오프라인 유통업 모두에 규제 칼날을 들이댈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의무휴업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상생’보다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입점 비율이 높다. 의무휴업으로 입점 자영업자들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커머스로 마찬가지로. 배송을 할 수 없는 의무휴업이 생길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소상공인들도 유탄을 맞게 된다. SSG닷컴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소상공인×SSG 기획전’에 참여한 280여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5%나 늘었다. 이커머스의 의무휴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을 활용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적어도 상생을 위한 규제라면 멀지 않은 곳에 해답이 있다. 바로 홈쇼핑이다. 국내 홈쇼핑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중을 할당받는다.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65%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해야 승인을 받는 구조다. 홈쇼핑처럼 이커머스에 도 중소상공인 입점 비율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yhh1209@

미리 보는 한 주 설 앞 ‘택배노동’ 사회적 합의 담판

이번 주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21일(목)로 예정된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순조롭게 채택될지 주목된다.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 7일 출범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작업(일명 ‘까대기’)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19일(화) 예정된 5차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사측과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도 사측과 진전된 합의가 없으면 20~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대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12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1월엔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매매로 돌아선 무주택 실수요층이 몰리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 9만2769건보다 25.9% 증가한 11만6758건이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8건으로 전달보다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18일(월) 2020년 12월 중 거주자와외화예금 동향, 21일(목)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이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되고, 설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도 주중에 발표된다.

해외 이벤트로는 20일(수·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진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옐런 지명자는 적극적 경기 회복 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 기대를 받았다. 직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인 그가 재정은 물론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비둘기파적(완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現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9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dfi innovation